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 등장인물의 특성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李 炅 美

2007年 8月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 등장인물의 특성 연구

指導教授 金 敬 浩

李 旻 美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李旻美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8月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appear on the <Poepple> sections in
Jeju's daily newspapers**

Kyong-Mi Lee

(Supervised by professor Gyong-H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07.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7
1. 이론적 논의	7
1) 게이트키퍼	7
2) 지위부여기능	10
2. 선행연구 분석	13
1) 뉴스선택 과정으로의 접근	13
2) 보도행태 및 보도경향으로의 접근	17
3) 정보원(취재원) 활용경향으로의 접근	18
III.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 현황	21
IV. 연구방법	24
1. 분석대상 신문선정	24
2. 분석기간	25
3. 분석단위	25
4. 분석유목	27
5. 분석방법	30

6. 신뢰도 검증	30
V. 연구결과 및 논의	31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	31
1)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분석	31
2)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분석	33
3)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성별 분석	35
4) 지면위치에 따른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분석	36
5) 지면위치에 따른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분석	38
6) 지면위치에 따른 등장인물의 성별 분석	40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	41
1)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 분석	41
2)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사진제시 분석	43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	44
1) 연도별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분석	44
2) 연도별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분석	47
3) 연도별 등장인물의 성별 분석	49
4) 연도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 분석	50
5) 연도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 재분석	53
4. <연구문제 4>에 대한 분석결과	55
1)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유형 분석	55
2) 연도별/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유형 분석	56
3)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분석	57
4)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분석	59
5)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기사주제 분석	60
6)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성별 분석	61
5. 연구결과 요약	62

VI. 결론 및 제언	66
1. 결론 및 논의	66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0
【참고문헌】	73
【ABSTRACT】	80
【부록: 심층면접지】	83
【부록: 코딩지】	86



표 목 차

〈표 3-1〉 제주지역 일간지의 편집체제	21
〈표 4-1〉 연도별 신문사 〈사람면〉의 인물기사 분포	26
〈표 5-1〉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직업분포	31
〈표 5-2〉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지위분포	34
〈표 5-3〉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성별분포	35
〈표 5-4〉 지면위치 중요도에 따른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37
〈표 5-5〉 지면위치 중요도에 따른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39
〈표 5-6〉 지면위치 중요도에 따른 등장인물의 성별유형	40
〈표 5-7〉 신문사별 기사주제 유형	41
〈표 5-8〉 신문사별 사진제시 유형	43
〈표 5-9〉 연도별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44
〈표 5-10〉 연도별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47
〈표 5-11〉 연도별 등장인물의 성별분포	49
〈표 5-12〉 연도별 기사주제 유형	51
〈표 5-13〉 연도별 기사주제 재유형	53
〈표 5-14〉 신문사별 기사유형 분포	55
〈표 5-15〉 연도별/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유형 분포	56
〈표 5-16〉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57
〈표 5-17〉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59
〈표 5-18〉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기사주제	60
〈표 5-19〉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성별분포	61

국문초록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 등장인물의 특성 연구

지역신문은 지역밀착성으로 인해 지역민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람면>은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지역민에게 지역 사람들이나 단체들의 소식을 알리는데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 등장인물의 특성 분석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의 <사람면>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단위로 10년 동안 총 5,363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이와 함께 실제 <사람면>의 기사를 취사선택하는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분석결과 <사람면>의 등장인물은 지역사회의 행정 관료나 유지, 그 밖의 엘리트층에 편중되어 전체의 40% 이상이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전체의 90%를 차지할 만큼 높게 나타났다. 기사의 지면위치 분석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은 주로 시각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일반사회단체 구성원이나 일반인들은 주로 집중도가 낮은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등장인물의 기사주제에 있어서는 사회사업, 행사개최, 격려/당부, 회의개최 등 주로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개인의 대외 PR용기사가 보도되고 있었다. 또한 등장인물의 관련사진 제시에 있어서는 대부분 증명사진 크기의 사진이 사용되고 있었다.

각 연도별 등장인물의 유형과 기사주제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과거 협회 및 단체 구성원과 일반인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현대로 올수록 공무원이나 경제계, 전문가 등 엘리트 집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기사주제 역시 현대로 올수록 공식적 업무수행과 더불어 인사이동, 수상/수여 등의 다소 개인적인 치적과 활동들에 중심을 둔 퍼블리시티 성격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었다.

특히 기사유형에 있어서는 1단 단신기사 위주의 비취재기사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취재기사는 5%로 나타나 대부분 짧은 토막기사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비취재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직업유형이 주로 공무원 집단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취재기사에서는 일반인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일반인의 등장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도 시사하듯이 제주지역 일간지의 <사람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일반 사람들보다 특정한 사람들 즉, 공무원 위주의 행적 알리기식 보도경향을 보였다.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행정 관료나 유지, 그 밖의 고위 엘리트층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기득계층만을 계속 부각시키고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제주지역 특유의 권당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밀착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식적 권력집단과 언론 간의 공생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예라 하겠다.

주제어 : 지역신문, 사람면, 등장인물, 정보원, 게이트키퍼, 지위부여기능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미디어가 생기기 이전 공동체 사회에서는 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여 왔으며, 정보라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층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복잡다양하고 능동적인 오늘날의 수용자들로 하여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경성기사보다 실제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고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정보 중심의 연성기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수용자의 특성은 매체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특히 다채널 다매체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는 수용자들을 영상매체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문들은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과감한 디자인과 다양한 삽화들을 제시하며 지면의 상당부분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지면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면은 세분화된 독자의 취향에 맞게 편집되는가 하면 또 어떤 면은 독자의 소외로 인해 폐지되기도 한다. 더구나 광역성과 즉시성을 강점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손수 신문을 찾아서 읽는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문을 읽는다 하더라도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읽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정보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지 않은 기사는 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은 신문·방송계의 다변화로 언론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증면경쟁이었는데, 이에 따라 각 신문사는 지면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지면을 신설하고 기획 기사를 강화하였으며, 섹션신문, 테마신문 등 별쇄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제별로 비슷한 성격의 기사들을 분리하여 같은 포맷으로 섹션을 고정시키는 분류섹션은 이미 90년대부터 활용되었고, 요

일별로 내용을 달리하는 가변섹션이 등장하였으며 여기에 주말 판 신문경쟁이 가세하기 시작했다.¹⁾ 이처럼 신문사들은 늘어난 지면을 채우기 위해 기존에 작게 취급하거나 취급하지 않았던 관광, 여가, 경제 등에 대한 기사를 확대하여 다루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기획물과 특집 기사를 선보이는 등 독자 사로잡기 방안을 놓고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사람면〉은 늘어난 지면을 채우기 위해 기획된 면 중의 하나이다. 조선일보는 1981년 11월 8일 〈사람면〉을 국내 최초로 신설하였고, 편집자註를 통해 ‘우리 모두 관심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이곳에 모아지기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사람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독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띠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 사별로 〈사람면〉이 경쟁적으로 제작되었고, 1989년부터는 각 신문이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되면서 〈사람면〉을 고정적으로 편집하게 되었다(변달수, 1998).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독자를 사로잡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제주지역 일간지 역시 90년대 이후 읍면 지역의 독자층 확대와 독자 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지역정보 및 활동사항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의 기관/단체 또는 마을 소식을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신문사들의 지면 경쟁은 〈사람면〉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에 있어 ‘공정성’은 한쪽에 치우쳐 평형을 잃는다거나 공기로서의 초연함을 잃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의한다(이배영 외, 2001, 103쪽). 그러나 당초 독자들의 면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면〉의 기사 대부분은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어 고위관료나 전문가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2001년 12월 6일자 〈사람사람〉면 사고를 통해 ‘동정란을 폐지하며,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관련 기사는 문화면에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의 이면에는 신문사 편집국에서조차 지나치게 유명인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당시 〈사람면〉의 ‘동정란’ 폐지 결정은 뉴스의 다양화

1) 섹션신문은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섹션과 부가섹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류섹션은 신문지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독자들이 신문 기사를 손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되자 이 문제를 해소하자는 데 일차적인 기능이 있다. 또한 부가섹션은 기존의 본체 신문을 두고 새로운 독자의 발굴을 위하여 별도의 주제로 부록판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리킨다(김신동, 「저널리즘비평」, 1998).

측면에서 신문업계의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됐다. 중앙일보의 이런 결정이 내려진 후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대부분 신문이 잇따라 같은 조치를 통해 지면을 개선하였으며, <사람면>의 접근권을 다양한 사람에게 개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완수, 2006).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은 지면별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그럼으로써 <사람면>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받았다(박성희, 2002). <사람면>의 지면혁신을 통해 독자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지역의 주요 일간지를 살펴보면 전국종합, 사설/종합, 자치행정, 사회, 경제, 기획, 문화, 스포츠/레저, 동정, 오피니언 등으로 지면을 구성하여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가 각 16면, 제주타임스가 12면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회에 걸쳐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²⁾ 여기에는 일간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들(제주일보, 16면 중 1면), 사람과 사람(한라일보, 16면 중 2면), 일과 사람들(제민일보, 16면 중 2면), 타임스 & 피플(제주타임스, 12면 중 1면) 등 각 신문사마다 1~2면에 걸쳐 도내 주요 인사들의 근황과 각종 일반사회단체의 행사에 관한 기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면>³⁾이 있다.

실제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근황을 이웃과 만나서 직접 듣지 않더라도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된다. 특히 신문의 <사람면>에서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매일 발생하는 지역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움직이는 상황들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 가운데 중요한 이슈들을 선별하고 축약하여 메시지로 전달한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보다 쉽게 인지하게 된다. <사람면>은 지역민에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의 소식을 알리는데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람면>이 지역소식을 알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물 동정에 관한 기사는 독자들이 잘 읽지 않는 기사들로 분류되어 독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우룡, 1993; 고영철, 2004; 조수선, 2004; 박재영·전형준, 2006). 결국 중앙은 물론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면>이

2) 이러한 제주지역 일간지의 지면구성은 2006년 11월 기준임.

3) 중앙일간지는 물론 지역일간지에서는 매일 1~2면에 걸쳐 사람과 사람, 사람들, 인물, 사람 일 사람, 피플, 사람과 사람들, 사람과 사람 등의 지면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단체의 동정을 다룬 이러한 면들을 <사람면>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독자 중심의 지면이라는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독자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앙일간지의 ‘동정란’ 폐지 현상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일간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면>을 증면하여 매일 전체 지면 가운데 1~2면을 인물/단체의 동정을 보도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사람면>이 확대되고, 지역신문이 갖고 있는 지역밀착성이라는 속성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중앙일간지에서 폐지된 ‘동정란’이 지역 일간지에서 더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지, ‘동정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러한 인물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지면에 보도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다뤄진 <사람면>에 대한 연구는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인물관련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엘리트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제주지역과 같은 특정지역에서 인물관련 기사들이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앙일간지의 <사람면> 보도성향과 비교해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상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사람면> 인물 보도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사람면>의 지면혁신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면>의 지면분석을 통해 <사람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지, 그들의 기사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며 어떠한 기사유형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등 <사람면>의 보도경향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보다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기 마련이다. 이는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자주 보도되거나 보다 많은 지면분량을 차지하기도 하며, 기사에 따라 헤드라인의 크기, 부제의 유무, 보도사진의 제시는 물론 지면에서의

위치 등 지면구성이 다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시각화를 구상하여 지면을 편집하기 때문에 각 신문 <사람면>에 보도되는 기사의 중요도에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사람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이들이 사회에서 위치하는 지위는 어떠한지, 이들의 성별은 무엇인지 등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알아보고, 이들의 기사는 지면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들의 기사주제는 무엇인지, 관련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지 등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각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성별은 어떠하며, 이들의 기사는 지면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

<사람면>은 해당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면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독자들은 지면화 된 기사들을 통해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보도되고 있으며, 그들이 지면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해당인물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람면>의 뉴스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이트키퍼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문제 1>은 각 신문사별 <사람면> 인물기사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등장인물의 유형과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직업, 사회적 지위, 성별, 지면위치를 비교할 것이다.

■ 연구문제 2 : 각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는 무엇이며 관련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가?

지역의 독자들은 중앙일간지에서 다룰 수 없는 지역의 이야기들을 지역신문에서 다뤄주기 바란다. 이는 지역신문의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민의 소소한 일상들을 접할 수 있는 <사람면>은 지역사람들의 축소된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2>는 이러한 <사람면>에서 어떤 기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신문사별로 <사람면> 등장인물의 기사주제와 관련 사진의 제시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 연구문제 3 : 각 연도별 등장인물의 유형과 기사주제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미디어는 수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새로워진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세분화된 수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수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미디어의 한 분야인 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독특한 편집 스타일을 시도하고, 다양한 기사주제로 독자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특히 현대로 올수록 신문독자의 감소현상이 더해감에 따라 신문사들은 과감한 편집과 풍부한 내용으로 독자 사로잡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문제 3>은 5년을 주기로 10년 동안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과 기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각 연도별 보도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 연구문제 4 :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유형과 기사주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미디어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보도한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중요하게 보도하기도 하며, 중요한 것이라도 중요하지 않게 보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뉴스는 뉴스생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선택된 뉴스는 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 보도유형을 갖는다. 어떤 기사는 1단 단신기사로 보도되는가 하면, 또 어떤 기사는 보다 크게 보도되거나 기자의 취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되기도 한다. <연구문제 4>는 기사유형을 취재기사와 비취재기사로 구분하여 <사람면>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유형과 기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각 연도별로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사람면>이라는 한정된 지면 내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이론적 논의

1) 게이트키퍼

뉴스는 흔히 사건에 대한 기술이라고 정의된다. 뉴스는 사건 자체가 아니고 사건의 보도이며,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일어난 일의 이야기 혹은 설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뉴스란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만을 흥미롭고 관심 깊게 설명한다고 해서 곧 뉴스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서정우 외, 2001, 213쪽).

호헨버그는 뉴스를 ‘당신이 어제는 모르던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이동신 외 공역, 1987), 리프먼(Lippmann, 1987)은 뉴스의 수집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인 모든 상황의 반영이 아니라 눈에 띄는 측면만에 대한 보고’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언론자유위원회(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의 연구에서는 ‘지난 몇 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 이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내용’이라고 정의했다(Hage, et al., 1976). 만일 보도된 것들이 인간에게 아무런 흥미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뉴스는 새롭고 이상하며 인간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정보나 사건으로서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을 의미한다(한국언론학회, 1994).

그러나 뉴스는 만드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어떤 사건이 뉴스로 인정받으려면 기자들이 그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여 저널리즘 문법에 따라 기사가 작성되고 보도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나 가치 설정 그리고 기사 작성과정은 결국 사건을 재구성하는 일련의 뉴스생산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언론매체가 그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이배영 외, 2001, 64~66쪽).

이처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다양한 사건과 정보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미디어를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데, 세계 도처로부터 수신되는 수십억 개의 메시지가 어느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수

백 개의 메시지로 축소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게이트키피는 정보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은 버려야 하는 일종의 선택 과정을 포함한다(최재완 역, 2001, 13~19쪽). 즉, 게이트키피이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뉴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사가치나 게재기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제아무리 거대한 언론매체라도 그 날 혹은 그 주간 발생한 모든 뉴스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취재할 뉴스나 수집한 뉴스, 취재할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뉴스선택 기준 때문에 모든 신문의 1면이 서로 비슷한 뉴스로 채워지고, KBS와 MBC의 9시 뉴스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장호순, 2000).

뉴스를 선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다양하다. 뉴스를 판단하는 뉴스가치, 게이트키피, 의사결정구조 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Berkowiz, 1990), 뉴스판단과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취재자원 간의 균형에 의해 뉴스가 선택되기도 한다(Epstein, 1973; Althide, 1976). 또 취재원에 관한 연구들은 취재원이 뉴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며(Sigal, 1973; Gans, 1979), 방송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Tuchman, 1978). 특히 버코워츠(Berkowiz, 1991)는 이 중 뉴스를 판단하는 뉴스가치가 뉴스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는 그냥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뉴스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뉴스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 뉴스에 대한 판단이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뉴스가치에 기초하여 기사를 평가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뉴스가치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고 수용자 중심의 관행을 설정하도록 해준다. 즉, 수용자에게 무엇이 호소력 있고 중요한가, 게이트키피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기사선택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는 뉴스가치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뉴스가치는 사람들이 흥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추출해 낸 것으로 여기에는 중요성, 흥미성, 논쟁성, 희귀성, 시의성, 근접성이 포함된다. 이러한 뉴스가치는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미디어가 하

루 동안 발생한 일을 모두 보도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발생한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희귀한 것을 중심으로 보도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일 것이다(김원용 역, 1997, 189~191쪽).

1951년 레빈은 어떤 집단의 음식 습관 변화 연구를 통해 메시지가 통과하게 되는 각 게이트 앞뒤로 메시지의 긍정과 부정의 양극을 변화시키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Shoemaker, 1991). 이처럼 초기의 게이트 키피핑은 많은 사건과 정보들 가운데 어떠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사건과 정보를 선택하는 게이트키피퍼의 이슈 선별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즉, 뉴스는 미디어로 연결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각 신문사나 방송사의 게이트키피퍼들에 의해 선택되어 이들이 의미를 부여한 이슈는 뉴스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기버(Geiber, 1956)는 개인 분석 차원의 게이트키피퍼 연구를 비판하였는데, 게이트키피핑 결정이 게이트키피퍼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편집국과 수용자의 가치관(관행 차원이나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신문의 전송 메시지 이용에 관한 연구(Gold & Simmons, 1965)에서도 아이오와주의 24개 신문과 AP통신이 기사주제들을 서로 비슷하게 취급한 것은 개인 차원에서 기자들이 뉴스를 비슷한 시각으로 판단하는데 기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행 차원에서 통신 기사가 선도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뉴스 비중을 결정하는 신문사의 내부 관행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조직이 사회체계 속에서 다른 조직과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조직이 게이트키피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보원, 이해집단, PR캠페인, 정부 그리고 광고주 등 미디어 조직 외부로부터의 기사 내용에 대한 영향 요인 또는 비 언론 관계자(non-press actors)들도 하나의 게이트키피퍼로 분류한 바 있다(Dunwoody & Ryan, 1983; Shoemaker & Reese, 1991). 이밖에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요인, 제작요인, 조직요인, 사회요인, 이데올로기 요인 등 이들이 관계하는 권력관계, 경제적 이해득실, 이데올로기적 관점, 개인적인 관계나 연고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뉴스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Shoemaker, 1991). 다양한 미디어가 출

현하고 개인 및 조직 간 네트워크가 결집되면서 뉴스생산의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뉴스생산 과정의 게이트키퍼 구조를 살펴보면,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뉴스를 선택,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할 때, <사람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수용자와 이러한 수용자의 요구에 흥미와 정보 등의 기사가치를 더해 뉴스를 생산함으로써 독자를 확보하려는 게이트키퍼의 필요가 맞닿은 결과로서 일정한 고정지면을 두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위부여기능

미디어는 미디어가 갖는 광파성과 의제설정기능으로 인해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공적 이슈의 현저성 즉, 특정한 이슈에 부여된 중요성 간의 강력한 연계는 의제설정이라 불리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입증해 주는데(배현석, 2005, 210쪽), 맥콤과 쇼(McCombs & Shaw, 1972)는 미디어의 수문 기능을 통해 중요한 사건이라고 설정한 의제는 수용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따라서 미디어의 보도 강조점과 수용자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이슈의 특징 간에는 강하고 긍정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의제설정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직접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를 수용자나 독자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인지적 변화라는 것이다(구본권, 2005, 45~46쪽).

이처럼 언론의 의제설정은 어떤 의제가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 과정을 포함한다. 만약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큰 잠재성을 가진 사건일지라도 보도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수용자에게 있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비록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지라도 미디어가 이를 부각시켜 비중 있게 보도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는 이를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미디어는 조명을 받은 인물이나 사건을 저명하게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미디어의 수용자들은 대체로 미디어가 전해주는 사건이면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서 미디어에 등장하는 명사(名士)나 악인

(惡人) 모두는 그 나름의 사회적 지위 효과를 얻는다(유일상, 2002, 37쪽). 터크만(Tuchman, 1978)은 매스 미디어가 ‘뉴스 인물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다고 설명하면서 가령, 국무장관은 자신의 생각을 뉴스 매체에 낼 수 있지만 보통사람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엘리트 계층은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뉴스화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 서민계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디어가 특정 사안이나 인물을 다룰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사안이나 인물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미디어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즉,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됨으로써 일반 시청자 혹은 독자들은 이 자체가 어떤 사회적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여 그 인물의 보도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지위부여기능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동시에 상승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위부여기능의 근간이 되는 저명성은 뉴스의 대상이 얼마나 유명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 장소, 사건 및 상황, 시간은 보통의 사건이나 인물보다 뉴스 가치가 높기 마련이다. 이처럼 매스미디어는 유명인사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모두 취급하며, 그들이 키스하고 말하고 숨쉬는 것조차 보도한다는 사실은 많은 미디어 비평가들을 통해 익히 주장돼 왔다(Favre, 2004). 사실 TV의 주요 시간대만 놓고 봐도 예외 없이 부자, 명사,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Saltzman, 1998; Synder, 2003; Hall, 2004).

이러한 계층에 관한 문제는 뉴스 미디어의 콘텐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뉴스는 주로 중상류 계층의 수용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또한 전반적으로 뉴스는 중류층이나 상류층의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현재 신문사들은 많은 페이지의 신문을 매일 발행하고 있으나 그중 노동자 관련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성뉴스는 항상 정치인이나 전문가 집단, 기업 간부 등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며, 미디어 조직은 주로 시청이나 도청, 국회 등의 강력한 정부 기관이나 주변을 돌아다니며 뉴스를 수집한다(전석호 역, 2001, 242~243쪽). 이렇듯 신문, 방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에서는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집중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영향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커트 랭과 글래디스 엔젤 랭(Lang, K. & Lang, G. E., 1959)은 의제를 설정할 때 뉴스 미디어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 일부 사건, 일부 활동, 일부 집단, 일부 인사 등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그것들을 강조하며, 각기 다른 이슈가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양과 종류의 보도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수용자 측면에서 볼 때, 수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와 미디어가 부각하는 의제가 일치하는 정도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황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그 중 하나는 노출의 빈도(frequency of exposure)로 수용자가 미디어의 주제나 쟁점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혹은 많이 노출되는지에 따라 의제의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수용자들이 미디어가 강조하는 주제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질수록 그 의제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저널리즘 처리 과정(journalism mechanism)으로 같은 뉴스라도 미디어가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의제설정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의제가 신문의 1면에 많은 지면을 차지하면 그 의제는 중요한 것이 되지만 구석에 작게 다루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김학천 외, 2001, 69~70쪽).

이밖에도 번스(Burns, 1995)는 라디오 음악방송이 반복적으로 특정음악들을 들려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그 음악들을 강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대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정사안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이들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반복적으로 기사화하여 이들의 지위에 대중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집단과 조직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에 관한 보도는 그들에게 권위와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거나 정치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의 향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의 뉴스 소재로 등장한 인물은 일반 공중으로부터 권위, 신뢰감 그리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혜택을 누린다(최정호 외, 1999, 48~49쪽).

라이트(Wright, 1975)가 제시한 미디어 기능에서도 미디어의 감시 기능을 통해 수용자들이 특정 개인이나 사회 또는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미디어가 그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중요도를 결정하는 지위부여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이러한 배타적 속성은 여성, 회사원, 주부, 농민, 외국인 근로자 등 약자 혹은 소수그룹의 의견이나 소식이 배제 또는 소외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1996; 박성희, 2002). 결국 이러한 미디어의 이분법적 보도행태는 사회 또한 이분법적으로 분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2. 선행연구 분석⁴⁾

1) 뉴스선택 과정으로의 접근

미디어는 수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양방향의 피드백 관계를 이루고 있다. 미디어는 수용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포맷과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수용자는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관심의 정도를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기호에 맞게 미디어를 견인한다.

독자와 언론인이 지역일간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바라고 있는 분야에 대해 분석한 연구(고영철, 2003)에 따르면, 독자집단과 언론인 집단 모두 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사들을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뉴스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근접성은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연구원(1990)에서 발표한 <신문 구독 행태 및 주목률 조사>와 지방신문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고영철, 2004)에 따르면 ‘동정란’에 실리는 기사들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주제별 구독자의 관심도를 파악한 연구(조수선, 2004)에서도 인물 동정은 가장 관심도가 낮은 뉴스 주제로 선별되었고, 오히려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미래에도 구독할 가능성이 적은 주변 독자가 인물(인사/동정)기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독자의 실

4) 신문지면에 관한 연구로는 신문 1면 사진에 나타난 포토저널리즘의 변화연구, 1면의 다양성 연구, 국내외 신문의 1면을 비교한 연구들과 문화면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나 <사람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로는 중앙일간지의 <사람면>을 중심으로 한 기획기사와 보도성향 연구, 인물 뉴스 연구 등이 있었고, <사람면>을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있었다.

5) 안정 독자는 현시점에서 같은 신문을 2년 이상 구독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같은 신문을 계속 구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구독자이며, 주변 독자는 같은 신문을 구독한 지 2년 이하이며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

제 열독률을 조사한 연구(박재영·전형준, 2006)에서도 <피플면>은 비열독률 상위 5위 안에 랭크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처럼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사람면>은 독자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자들이 <사람면>에서 기대하는 것과 게이트키퍼가 <사람면>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게이트키퍼는 독자들의 열독행태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인물 동정난의 보도행태를 연구한 김우룡(1993)에 의하면 신문사에서는 누구나 게재를 요청해 오면 지면이 허락하는 한 이 면에 신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독자가 이 면을 활용하는 예는 많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명확한 기사 게재기준이 없어 인물 동정난 기사가 모자랄 경우, 게재요청이 들어오는 주요기관이나 지명도가 높은 인사와 관계되는 홍보성 기사가 ‘지면뺨질용’으로 상당부분 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람들면 보도성향에 관한 연구(변달수, 1998)에서도 출입처 기자들이 취재해 오는 기사들과 각 기관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접 게재요청을 해오는 기사들 가운데 각 부서의 기자가 실릴 만 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작성해서 데스크로 보내면 데스크에서 취사선택하여 사람들면 담당부서로 넘긴 후, 최종적으로 사람들면 담당 데스크가 선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사가 많을 경우에는 편집담당 기자가 임의로 취사선택해서 삭제하기도 하며, 기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출입처 관리 차원에서 공익성이 떨어지는 홍보성 기사를 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앙일간지 <사람면>에서는 일반 독자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게이트키퍼들의 뉴스선별 과정에 저명성이라는 기사가치와 함께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고관계, 그리고 사회나 조직과의 연결망이 개입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완수(2006)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국내 신문 게이트키퍼들의 인물 뉴스 선택 기준은 뉴스로서의 가치보다 사회적으로 저명성이 있는가,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파워 엘리트의 이야기인가, 자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등을 가려 선택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

문을 미래에도 구독할 가능성이 적은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조수선, 「신문 구독자의 다양성」, 2004).

명했다.

이처럼 뉴스 선택이 뉴스 가치와 독자의 관심여부를 떠나서 미디어 종사자에 의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실제 수용자와는 유리되는 특성을 갖는다(구본권, 2005, 45~46쪽). 결국 이러한 관계들 때문에 <사람면>에서는 독자들이 원하는 기사보다는 신문사의 관행으로 치부되어 온 공적채널의 과잉에서 기인한 보다 접근이 쉬운 기사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한편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조직이나 기자는 사회적 엘리트와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구축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다(김정기, 1999; 김용학, 2004)거나 뉴스를 생산함에 있어 사회적 파워 엘리트들과의 연결이나 관계를 뉴스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삼고 있다(김사승, 2004)고 지적한 바 있으며, 공적인 업무수행 과정이 친분과 같은 사적인 관계를 토대로 진행되기도 하며(박동숙·조연하·홍주현, 2001),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집단과 파워 엘리트 집단 간의 ‘담합적 네트워크’로 이해하기도 하였다(강명구, 2004).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이완수(2006)는 인물 뉴스가 인간적인 흥미를 가질 만한 사람이나 이슈를 소재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고려될 개연성이 다른 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미디어들이 인물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적 또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관계나 정치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주목했다. 그 결과 인물 뉴스 게이트키퍼들은 사회적 상류층이나 엘리트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사적 연결망이 인물 뉴스 결정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뉴스의 선택과정에 있어 뉴스가 가져야 할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등의 요소 이외에도 개인적 혹은 집단적 연고관계, 개인간 혹은 집단간의 이해관계 등 다소 주관적인 요소들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지역신문이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저널리즘 행태가 달라진다는 연구(윤영철·홍성구, 1996; 정상운, 1996)에서도 시사하듯이 뉴스가 선택되기까지의 게이트키퍼링 과정에서 공식적 권력집단과의 관계는 뉴스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도 버코비츠(Berkowitz, 1987)는 방송의 경우, 신문에 비해 훨씬 적

은 수의 취재원을 사용하며 더 빈번하게 관행적 채널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솔로스키(Soloski, 1989)는 지역 뉴스의 취재원 사용 관행 분석을 통해 정부 관계자 중심의 취재원과 기자들 간의 공생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일간신문 기사의 2/3 이상이 보도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오창우, 2000),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의 의존비율이 80%를 넘는다는 연구(박용규, 1996; 장호순, 2001)는 정보원에 대한 기자의 종속화와 기자들과 공식적 권력집단 간의 공생관계를 설명하는 데 설득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서처럼 뉴스 선택과정에 있어 기사가 갖고 있는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밖에 게이트키퍼들이 선호하는 공적채널과 여러 경로로 생성되는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통해 뉴스가 선택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적 관계는 현실적으로 기자들에게 있어 주요 인물들의 인간 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고(김사승, 2004), 한국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은 사회적 관계나 위치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라고 설명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임영호, 2002). 또한 실제로 정치인, 관리, 기업인 등 파워 엘리트들과 기자들 사이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른바 공생관계가 흔히 발견된다고 설명한다(Gans, 1979).

이에 대해 이동근(2004)은 언론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직업상의 자율성을 그들이 뉴스기사에서 인용하는 정부 측 정보원들에게 스스로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 정부와 정치엘리트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 구조가 연고주의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다 취재 관행상 중요한 정보를 얻어 내기 위해 사적인 ‘관계 맺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이완수, 2006).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기사들이 주로 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내오는 보도 자료에 근거한다는 점과 대부분 이들에 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처럼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공식 권력구조와 기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공식, 사적인 연결망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보도행태 및 보도경향으로의 접근

실제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각종 사회단체들이 하는 일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경험을 통해 알기 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는 경우가 더 많다. 가까운 예로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에서는 증명사진 크기의 사진과 함께 새로 선출된 고위 공직자나 각종 단체의 대표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루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으며, 이들의 행적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에서는 이들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고, 어떤 행사에 방문했으며, 어느 단체에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등 이들의 근황을 설명하는 홍보성 기사들이 3~5줄 혹은 그 이상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각 마을의 부녀회나 청년회, 각종 일반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사회사업, 기념행사 등을 홍보하는 기사들도 다수 보도되고 있다.

한편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사람면> 등장인물의 직업유형을 분석한 연구(김우룡, 1993; 변달수, 1998)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반사회단체장, 교수·연구원, 장·차관, 언론인, 기업인 등으로 나타나 이들의 직업은 대개 정부 관리와 같은 공식적 권력집단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픽션에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가진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는 과잉 표현되고 있으며 기존의 지배적인 직업은 의사, 국회의원, 법관, 사업가 등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eggar & Wheeler, 1973). 또한 텔레비전에 묘사된 직업유형의 연구(DeFleur, 1964)에서도 중상류층의 직업은 과장된 반면 중하류층의 직업은 축소되어 있고, Dominick(1979)는 텔레비전이 관리직·전문직을 과대표사 하고 있으며, Signorielli(1985)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문인 중 의사는 반신반인(伴伸伴人)으로, 간호사는 의사에 종속되거나 성적 대상물로서 묘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영철(2004)은 특정한 사람과 집단이 신문과 방송에서 자주 보도될수록 일반인들도 그들이 유명한 사람(집단),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지위부여기능’이 <사람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미디어가 특정 인물을 자주 다룸으로써 수용자들은 이들을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고,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영호·이현주(2001)는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떤 문제에 관해 깊은

지식을 갖추고 발현할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언론보도를 통해 그 권위는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면>에 실린 기사 대부분이 일부 특정 기득권 계층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통해 그들의 지위부여와 자기과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디어가 갖는 사회통합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면>이 일부 특정계층의 향유물로 인식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디어의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람면>은 지역의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행하는 각종 이슈들을 둘러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신문의 의제 설정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람면>에 보도되는 뉴스들을 살펴보면 일반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사회의 저명인사들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행적들을 쫓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매일 발생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근접성과 저명성을 근거로 기사를 선택, 선별하여 중요도 순으로 기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람면>의 의제설정 은 시의성과 근접성에서 출발하지만 저명성으로 귀결되는 현실적 모순을 낳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기득계층인 주요 저명인사와 엘리트 등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그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행태는 결국 그들의 지위부여기능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한다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행정 관료나 유지, 그 밖의 고위 엘리트층의 동정만 살핌으로써 그 사회의 기득계층만을 계속 부각시키고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3) 정보원(취재원) 활용경향으로의 접근

기자들은 매일 다양한 사건들을 보도하지만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여 기사를 쓰는 것은 아니다.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만으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없다. 특히 객관성을 근간으로 한 기사들의 경우, 기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된 이야기들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결국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정보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있어 정보 소유자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원(취재원)에 대해 터크만(Tuchman, 1978)은 ‘정보의 출처’라고 정의하였으며, 갠스(Gans, 1979)는 ‘방송에 등장했거나 기사에 인용된 사람 또는 단순히 배경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사를 제보한 사람을 포함하여 기자가 관찰했거나 인터뷰한 인물’을 총칭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연구(임영호·이현주, 2001)에서는 정보원을 신문 기사에서 확인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 출처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정보원이란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문서나 자료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언론인의 취재활동은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획득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뉴스 보도의 형식도 대부분 정보원으로 하여금 그 사안에 관해 말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다(이동근, 2004). 이에 대해 시갈(Sigal, 1987)은 뉴스를 현실세계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혹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누군가에 의해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이재경·김진미(2000)는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취재원은 오래전부터 기사 속에 고정적인 형식요소로 자리잡아왔다고 설명한다.

정보원은 기자들이 기사작성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실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실 구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뉴스생산에 있어서 정보원과 기자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정보원에 의존하는 관행이 언론이 현실을 묘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언론의 정보원 선택기준은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더한 정보원이 그렇지 못한 정보원보다 더 자주 뉴스에 등장하거나(Gans, 1979), 개인 정보원보다 조직 정보원이 언론에 의해 더 선호된다(Paletz & Entman, 1981)고 설명한다. 또한 언론이 어떤 취재원을 사용하는가에 관한 연구(이원락, 1991;

이재경·김진미, 2000; 임영호·이현주, 2001; 한국언론재단, 2001)에서는 기사에 이용되는 취재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그것도 정부 관리와 같은 공식적 권력집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강명구(1990)는 우리나라 TV 뉴스의 취재원을 연구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형이 공식 채널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취재환경에서 언론이 어떤 정보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가는 기사의 내용과 가치에 직결된 문제이다. 정보원이 특정 입장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할수록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며, 정보원을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인용할수록 뉴스의 신뢰성은 커진다. 그러나 뉴스보도에 있어 얼마나 다양한 정보원이 활용되는지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의 정보원이 정부기관이나 관료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은 극소수만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보도행태는 정부 등의 공식기관 또는 권력층에서 내보내는 정보 중심으로 기사가 배치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게 한다고 설명한다(김재영, 2006).

결국 취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출입처 제도는 오히려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었고, 이를 통해 보도 자료의 과다한 의존과 공적채널의 빈번한 보도라는 관행을 낳았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기사의 획일화와 편중화로 인해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권력집단 간의 정보생산과 정보공유로 여론을 지배하여 정체하게 만드는 역기능을 가져왔다.

Ⅲ.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 현황

제주지역에서는 현재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타임스 등 4개 일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들 일간지의 편집체제를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제주지역 일간지의 편집체제(2006년 11월 기준)⁶⁾

지면구분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1면	종합	종합	종합
2면	종합	사실/종합	종합
3면	종합	자치행정	종합
4면	사회	사회	사회
5면	사회	사회	사회
6면	지역종합	경제	자치행정
7면	문화	기획	기획
8면	경제	문화	전면광고
9면	스포츠	스포츠	경제
10면	전면광고	전면광고	문화
11면	전면광고	부동산 종합정보	TV/연예
12면	방송	사람과 사람	스포츠&레저
13면	사람과 사람들	사람과 사람	오피니언
14면	오피니언	오피니언	일과 사람들
15면	열린페이지	전국종합	일과 사람들
16면	전면광고	전면광고	전면광고

제주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일간지의 ‘사람들 이야기’ 동향을 살펴보면 제주일보는 1945년 창간 이후 1991년 10월부터 「사람과 사람들」과 「주간 주요행사」를 소제목으로 하여 도내 각종 사람들과 단체들의 동정을 보도하고 있었다. 이후 1993년 5월, 신문지면이 종합, 정치, 해설, 기획, 중앙경제, 외신, 전국사회, 생활, 문화, 지방경제, 사람과 사람들, 체육, 관광·레저, 사회, 지역중

6) 제주타임스는 1999년에 주간지로 창간, 2004년에 본격적으로 일간지화 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199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합, TV·연예 등 20면으로 증면되면서 섹션화를 시작하였고, 「사람과 사람들」면을 두어 본격적으로 지역 주요인사와 단체들의 근황을 다루었으며, 현재에는 전체 16면 가운데 1개면에 <사람과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한라일보의 경우에는 1989년 4월, 8면체제로 창간하면서부터 「사람과 사람」이라는 소제목 아래 짧은 토막기사로 인물 혹은 지역단체의 근황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후 1990년 6월부터는 「인물동정」이라는 소제목으로, 1991년 11월부터는 「사람들」이라는 지면제목을 달고 한 면 모두를 할애하여 인물 혹은 지역단체의 근황을 보도하고 있었다. 1995년 2월에 접어들면서 지방경제, 국제, 문화, 생활, 스포츠, 사람들, 지방종합, 방송, 오락 등 16면 체제로 부분적 섹션화를 시도하였고, 1998년 2월에는 종합, 해설, 경제, 지방경제, 기획, 문화, 스포츠, 사람들, 지역뉴스, 사람, 방송 등 전면 섹션화를 통해 신문을 발행해 왔다. 현재에는 전체 16면 가운데 2개 면을 할애하여 <사람과 사람>이란 지면제목 아래 다양한 인물들과 단체들의 동정을 보도하고 있다.

제민일보의 경우에는 1990년 6월 창간 이래 「금주 캘린더」, 「우리마을 이모저모」와 「동정」을 소제목으로 하여 몇몇 인물 위주의 얼굴 동정과 행사소식을 다루다가 1991년 12월, 섹션화는 하지 않았지만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되면서 인물/단체에 관한 소식들로 한 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후 「동정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1992년 9월에 개편이 있었고, 1995년 10월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란 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창간 6주년이 되던 1996년 6월 이후 종합, 해설, 주식, 경제, TV, 문화, 스포츠, 사람들, 지방종합, 사회 등 총 16면으로 증면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문 지면을 활용, 현재 16면 가운데 2개 면을 <사람과 사람>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지역 내 3개 일간지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인물/단체 동정을 처음 게재할 때만 해도 일정한 지면이 아닌 사회, 문화, 교육 기사와 함께 보도하고 있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행면수의 증면과 더불어 섹션화를 통해 고정지면을 갖게 되었고, 지면구성 내용도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특성은 과거 중앙과 관련된 정치, 경제 등의 보도행태에서 지역의 뉴스 중심으로 보도행태를 전환하였고, 주요 뉴스면의 증면, 생활경제나 레저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사의 확대, <사람면>의 확대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영철(2006)은 지역신문 보도내용의 많은 부분이 중앙 정치 일변도에서 지방의 기사로 바뀌고 있으며, 과거에 1면을 장식하던 서울과 중앙정가의 뉴스들이 뒷장으로 숨거나, 서서히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 중앙의 권력자들이 독식했던 지면이 지역의 권력자들과 지방행정, 지역현안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이 사회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인지, 아니면 지역신문이 사회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신문의 편집행태를 의도적으로 바꾼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지역신문의 편집행태와 보도내용이 바뀌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 내용이 많이 보도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분야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볼 때, 중앙일간지가 90년대 이후부터 섹션화를 통해 지면구성을 다양화했듯이 제주지역 일간지에서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독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문의 지면구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제주지역 일간지의 경우, <사람면>의 할애면적이 다른 면보다 많은 것은 신문지면구성이 섹션화 되면서 과거 <문화면>이 해왔던 역할⁷⁾처럼 여기에도 저기에도 실리기 애매한 기사들 즉, 각종 화측과 부음, 안내와 모집, TV편성 프로그램, 운세, 심지어는 작은 광고들까지도 <사람면>에 실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7)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문화면>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지면을 두지 않고, 2개면에 젊음의 광장, 캠퍼스 소식, 여성, 연재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사를 다루었으며, 이는 다른 면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기사들을 <문화면>에서 다룬 것이라 보았다. 또한 이처럼 <문화면>은 갈 곳 없는 온갖 기사가 실리는 면으로 인식되어왔다고 설명했다(고영철,2006).

IV.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신문선정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발간되는 대표적인 신문인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등 3개 일간지 <사람면>에 보도된 인물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처럼 3개 일간지를 선택한 이유는 한·미·일 신문지면을 비교한 연구(박재영, 2004)와 지역신문의 문화보도 경향 연구(고영철, 2006)에서 제시한 분석신문 선정에서도 시사하듯이⁸⁾ 첫째, 제주지역 일간지 4개 가운데 3개 일간지만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는 각 신문사의 규모, 발행지면 수, 사회적 영향력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슷한 반면 제주타임스는 다른 세 신문에 비해 다소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타임스는 1999년에 주간지로 창간, 2004년에 일간지로 전환하여 역사가 짧은 반면 나머지 세 신문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연도별 발행면수가 다르긴 하지만 매일 1개면 이상 고정적으로 <사람면>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 신문만 비교하더라도 충분한 분석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석대상 신문은 요일적 특성이 분석결과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구성 방법⁹⁾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스템펠(Stempel, 1952)의 연구에서는 한 신문에 1년 동안 게재된 단일 주제에 대한 기사내용을 분석할 경우, 그 표본의 크기를 각각 6일, 12일, 18일, 24일, 48일 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와 1년 분 모두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12일 분 이상의 각 표본에서 나온 결과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라이피, 레이시, 피코(Riffe,

8) 한·미·일 신문지면 비교연구(박재영, 2004)에서는 각 신문이 존재하는 환경 내에서의 신문사 규모, 발행지면 수, 독자 수,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신문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즉, 메이저 종합일간지라고 보아지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한국의 조선일보를 선택했다. 제주지역 일간지의 문화보도 경향 연구(고영철, 2006)에서도 제주지역 내 4개 일간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슷한 신문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는 신문들의 조합이어야만 연구목적에 맞는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9) 구성주(constructed week)란 연속적인 날짜로 구성된 일반적인 주가 아니라 비연속적이지만 특정 기간을 대표하는 7개의 요일로 구성된 인위적인 주를 일컫는다(Riffe et al., 1993).

Lacy & Fico, 1998)는 일간지의 경우, 구성주 2주치가 1년치 신문의 가장 적절한 표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사전에 샘플링을 해 본 결과, 현대로 올수록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기사가 줄어들어 따라 매월 하루씩을 추출해서 분석하기에는 분석량이 적은데다 해당일별 기사수의 편차가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따라서 매월 4일치를 추출, 총 48일치를 구성하여 신문을 표집하였다.¹⁰⁾ 각 달의 표본을 선정하는 데는 클락(Clark, 1960)의 회전식 표집방법¹¹⁾을 사용하였다.

2. 분석기간

분석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996년을 시작으로 5년의 기간을 두고 총 3개 연도로 나누었다. 이는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보도경향을 분석함에 있어 다소 시간차를 두고 연도별 차이를 볼 때만이 <사람면> 보도경향의 흐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3. 분석단위

분석단위는 개별 뉴스 기사 단위로 했으며, 3개 신문의 <사람면>에 게재된 기사로 한정했다. <사람면>은 지역 내 인물 혹은 사회단체들의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사람면>에 게재된 기사 가운데 단체의 행사나 동정과

10) 분석에 앞서 샘플링을 해 본 결과, 매월 1일치 신문을 추출하여 총 12일치를 표집할 경우, 연도별 하루치 분석대상 기사개수가 제주일보의 경우, 1996년(25개), 2001년(16개), 2006년(6개), 한라일보의 경우, 1996년(16개), 2001년(12개), 2006년(5개), 제민일보의 경우, 1996년(16개), 2001년(13개), 2006년(5개)으로 나타나 해당 연도별 평균 342건, 총 1,368개의 기사가 집계되었으나 연도별 342건을 가지고 해당연도의 <사람면> 보도경향을 일반화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월 4일치의 표본을 추출했다.

11) 클락(Clark, 1960)의 회전식 표집방법은 첫 번째 사례는 제1주 월요일, 두 번째 사례는 제2주 화요일, 세 번째 사례는 제3주 수요일 등의 순서를 뽑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 달마다 4일치를 표집하였는데, 1월에는 첫째 주 월요일, 둘째 주 화요일, 셋째 주 수요일, 넷째 주 목요일, 2월에는 다섯째 주 금요일, 여섯째 주 토요일, 첫 번째 주 월요일, 두 번째 주 화요일 등의 순으로 하였다.

관련한 기사 및 부고, 화축, 안내, 모집 기사 등을 제외한 기사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기사는 <표 4-1>에서와 같이 제주일보 2,226건, 한라일보 1,525건, 제민일보 1,612건으로 총 5,363건이다. 신문사 간 분석기사 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신문의 발행면수와 <사람면>에 할애하는 지면수¹²⁾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연도별 기사건수가 1996년에 2,688건(50.1%)이었던 반면, 2001년에는 1,904건(35.5%), 2006년의 경우, 771건(14.4%)으로 기사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1990년대 초, 지면 증면에 따라 <사람면>이 고정지면을 갖게 됨으로써 개인 관련 기사는 물론 단체의 행사 및 동정에 관한 기사마저 개인에 초점을 두고 기사화하는 관행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대(2001년, 2006년)로 올수록 개인과 단체의 기사로 구분하여 기사화함에 따라 기사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996년 제주일보의 기사건수가 다른 두 신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사람과 사람들>면을 ‘서귀포시·남제주·북제주군’으로 통합하여 지면을 구성함으로써 한정된 지면 안에 다양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기 때문이다.

<표 4-1> 연도별 신문사 <사람면>의 인물기사 분포(단위: 건수, ()안은 %)

구분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합계
1996년	1179(53.0)	755(49.5)	754(46.8)	2688(50.1)
2001년	748(33.6)	554(36.3)	602(37.3)	1904(35.5)
2006년	299(13.4)	216(14.2)	256(15.9)	771(14.4)
전체	2226(100.0)	1525(100.0)	1612(100.0)	5363(100.0)

12) 해당연도별 발행면수 대비 <사람면>의 할애 지면수를 보면, 제주일보의 경우, 1996년에는 24면 중 1면, 2001년에는 24면 중 2면, 2006년에는 16면 중 1면을, 한라일보의 경우, 1996년에는 16면 중 1면, 2001년에는 20면 중 1면, 2006년에는 16면 중 2면을, 제민일보의 경우, 1996년에는 16면 중 1면, 2001년에는 24면 중 2면, 2006년에는 16면 중 2면으로 나타났다.

4. 분석유목

주요 분석유목은 등장인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과 등장인물 기사의 내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등장인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유목들로 등장인물의 직업, 사회적 지위, 성별을 설정했다. 직업의 경우, 선행연구(이원락, 1991; 김우룡, 1993; 변달수, 1998; 이완수, 2006)와 정보원 유형 연구(이동근, 2004; 김재영, 2006)에서 사용한 유목들과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00)를 종합적으로 도출한 뒤 예비조사¹³⁾를 거쳐 제주지역의 특성¹⁴⁾에 맞게 조합하고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와 정보원 유형 연구에서 사용한 유목들과 제주지역의 특성상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를 위해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에 근거, 직렬별 공무원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참조하여 유목을 구분, 소속기관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해당 인물의 이름과 제시된 사진에 따라 구분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 적용된 분석단위별 유형은 다음과 같다.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 | | |
|---------|---------------------------|
| ① 중앙정부 |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 행자부 등 행정부처 |
| ② 광역단체장 | 도지사 |
| ③ 기초단체장 |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 |

13) 예비조사는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2007년 2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일주일치의 기사 63건을 대상으로 했다.

14) 2006년 7월, 제주도는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고도의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행정계층구조는 기초자치단체인 사군을 폐지해 제주도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고 주민들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직접 뽑게 되었으며, 국립 경찰과는 별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방법과 교통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96년부터 2006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연구기간이 6개월인 점에 감안할 때,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직업유형 분류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④ 지방의회	도의회, 기초의회 의원 등
⑤ 정치인	국회의원 및 정당인
⑥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
⑦ 교육계	총장, 교장, 교육감, 초·중·고 교사, 교수 등
⑧ 경찰법조계	경찰, 검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⑨ 금융계	은행, 증권 등 금융계 종사자
⑩ 의료계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⑪ 문화예술·종교계	작가, 화가, 음악가, 연극인, 스포츠 선수, 목사, 스님 등
⑫ 전문가	언론인, 과학자,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연구원 등
⑬ 기업 및 유관단체	중소기업 이상 기업체나 관련직 종사자, 각종 협회
⑭ 시민사회단체	사회 변화, 개선을 목표로 한 단체
⑮ 일반사회단체	자생적 조직단체 구성원
⑯ 1차 산업 종사자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 종사자
⑰ 2·3차 산업 종사자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
⑱ 일반인	지역주민, 학생, 주부, 노인 등
⑲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① 공직자(고위관리자)	정부기관·공공기관 고위층(국장급 이상, 1~3급)
② 공직자(중간관리자)	정부기관·공공기관 중간층(계장급 이상, 4~6급)
③ 공직자(하위관리자)	정부기관·공공기관 하위층(7급 이하)
④ 정치계	국회의원 및 정당인
⑤ 경제계	금융, 기업, 경제활동 관련 협회 등
⑥ 전문가	학자, 과학자, 의사, 변호사 등
⑦ 협회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단체 및 자생적 조직단체
⑧ 일반인	지역주민, 학생, 주부, 노인 등
⑨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둘째, <사람면>에 보도되는 기사의 내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유목들로 지면에서의 기사위치와 기사주제, 관련 사진의 제시 유무를 설정했다. 기사위치는

지면 가운데 인물 동정 기사가 시작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각 기사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¹⁵⁾ 이는 신문지면 상 주목률¹⁶⁾에 근거하여 기사의 위치에 따른 등장인물의 중요도를 보고자 함이다. 기사주제는 선행연구(김우룡, 1993; 변달수, 1998; 이완수, 2006)에서 사용한 유목들과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했고, 관련 사진의 제시 유무는 신문지면에 실린 사진을 토대로 파악하였다.

<등장인물의 기사주제 유형>

① 회의 개최	기관장 회의, 실무자 회의, 간담회, 정기총회 등 개최
② 회의 참석	기관장 회의, 실무자 회의, 간담회, 정기총회 등 참석
③ 행사 개최	세미나, 특강, 교육, 연수회, 박람회, 발표회, 캠페인 등 개최
④ 행사 참석	세미나, 특강, 교육, 연수회, 박람회, 발표회, 캠페인 등 참석
⑤ 기념식 개최	수료식, 이·취임식, 개회식, 등 개최
⑥ 기념식 참석	수료식, 이·취임식, 개회식, 등 참석
⑦ 격려·당부	격려차 방문, 시찰, 당부, 점검 등
⑧ 인사이동	승진·전보 등의 인사이동, 선출·취임·퇴임 등의 직위변동
⑨ 수상·수여	표창장, 공로패 등 각종 수상·수여, 학위취득
⑩ 봉사활동	무료봉사, 일손 돕기, 환경정비활동 등
⑪ 사회사업	장학금, 격려금, 성금, 기부금, 물품 기탁 및 전달
⑫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

15) 제주지역 일간지의 경우, 기사 작성은 보통 7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람면>의 경우에는 4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여기서 기사의 위치는 <사람면>의 지면에서 좌우 관계없이 인물기사가 시작하는 순서를 1로 가정하고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1을 더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테면, 첫 번째 인물 기사를 중요도 1로 보았을 때, 두 번째 인물기사는 중요도 2로, 세 번째 인물기사는 중요도 3으로 분류하여 다섯 번째 인물까지만 분석하였다. 여기서 지면상 위치 파악이 모호한 박스기사와 취재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6) 신문 공간에서의 주목률이라 함은 공간(space)에서 시선의 밀도 즉, '어느 위치에 시선이 오래 멈추는가'를 말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시선의 흐름과 밀도는 하부보다 상부 쪽이, 우측보다 좌측이 시각적 소구력이 강하고 좌측 상부가 가장 먼저 시선을 받으며 시각적 소구력이 강한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좌상 4분할면의 밀도가 캐치프레이즈를 상부에 배치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편집은 기사를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관계로 스페이스의 상부를 기사면, 하부를 광고면으로 하고 있다(<http://blog.naver.com/wing0544>).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집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교차분석(χ^2)을 실시하였다.

또한 2단계 작업으로 각 신문사 <사람면> 게재 기사를 취사선택하는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¹⁷⁾

6. 신뢰도 검증

분석 유목간 코딩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매스컴연구방법론’을 이수하고 다수의 신문지면 분석을 통해 단련이 된 학부생 1명을 통해 분석대상 기사의 5%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 ‘종합적 신뢰도 계수(compositive reliability coefficient)’를 계산한 결과, 코더 내 신뢰도는 분석유목에 따라 등장인물의 직업유형과 지위유형에서는 각각 0.95, 기사주제에서는 0.93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유목에서는 완전히 일치했다.

17) <사람면>에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부 내용들만 선별되어 게재된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기사를 채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는 각 신문사의 게이트키퍼를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 이들에게 <사람면>의 역할 및 관리부서와 게재 기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등 총 5개 문항 13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방식은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게이트키퍼에게 연구자가 제시한 면접지를 직접 기록하는 서면 면접방식과 구두를 통한 면접방식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신문지면 분석에 있어 내용분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다(별첨 부록: 심층면접지 참조).

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

■ 연구문제 1 : 각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성별은 어떠하며, 이들의 기사는 지면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

1)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분석

<사람면>에 어떠한 사람들이 기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앙정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정치인, 일반인 등 총 18개의 직업유형으로 분류하여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직업유형의 분류에 있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으로 구분한 것은 제주지역의 행정구역 편제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차 산업 종사자와 2·3차 산업 종사자로 구분한 것은 섬이라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상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인구수와 제조업 등 소규모 기업체 위주의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5-1>에서는 각 신문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5-1>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직업분포(단위: 건수, ()안은 %)

구분	중앙 정부	광역 단체 장	기초 단체 장	지방 의회	정치 인	공무 원	교육 계	경찰 법조 계	금융 계	의료 계	문화 예술 종교 계	전문 가	기업 및 유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일반 사회 단체	1차 산업 종사 자	2,3 차산 업종 사자	일반 인	합계
제주 일보	16 (0.7)	19 (0.9)	78 (3.5)	60 (2.7)	13 (0.6)	432 (19.4)	186 (8.4)	112 (5.0)	134 (6.0)	63 (2.8)	42 (1.9)	9 (0.4)	74 (3.3)	1 (0.0)	675 (30.3)	34 (1.5)	65 (2.9)	213 (9.6)	2226 (100.0)
한라 일보	12 (0.8)	37 (2.4)	83 (5.4)	93 (6.1)	15 (1.0)	342 (22.4)	100 (6.6)	108 (7.1)	101 (6.6)	12 (0.8)	35 (2.3)	7 (0.5)	85 (5.6)	1 (0.1)	319 (20.9)	11 (0.7)	32 (2.1)	132 (8.7)	1525 (100.0)
제민 일보	10 (0.6)	37 (2.3)	122 (7.6)	83 (5.1)	19 (1.2)	349 (21.7)	142 (8.8)	94 (5.8)	104 (6.5)	17 (1.1)	49 (3.0)	7 (0.4)	89 (5.5)	0 (0.0)	305 (18.9)	15 (0.9)	35 (2.2)	135 (8.4)	1612 (100.0)
전체	38 (0.7)	93 (1.7)	283 (5.3)	236 (4.4)	47 (0.9)	1123 (20.9)	428 (8.0)	314 (5.9)	339 (6.3)	92 (1.7)	126 (2.3)	23 (0.4)	248 (4.6)	2 (0.0)	1299 (24.2)	60 (1.1)	132 (2.5)	480 (9.0)	5363 (100.0)

* $\chi^2 = 213.703$ df=34 p<.000

〈표 5-1〉에서 보여지듯이 〈사람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유형은 일반 사회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이 20.9%로 나타났고, 일반인(9.0%), 교육계(8.0%), 금융계(6.3%), 경찰법조계(5.9%), 기초단체장(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0.7%), 전문가(0.4%), 시민사회단체(0.0%)는 다소 낮게 집계되었다.

이처럼 일반사회단체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각종 마을단위 부녀회나 청년회, 협의회 등 사적인 조직체의 동정을 다루는 기사들이 그 단체의 대표자 중심으로 기사화되었기 때문이다.¹⁸⁾ 반면 일반인의 빈도가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높은 이유는 각 마을의 선출직이라 볼 수 있는 이장, 통장 등을 일반인에 포함, 이들의 동정을 다루는 기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전문가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풀이되며,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소식이 지역주민에게 심리적으로 가깝지 않는데서 기인, 이들에 대해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분포가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 금융계 종사자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지도자적 위치를 갖고 있는 행정 관료나 유지, 그 밖의 엘리트층이 〈사람면〉의 주요 등장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이할만한 점은 시민사회단체의 기사건수가 단지 2건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복잡 다변한 사회를 견제할 단체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다.

신문사별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제주일보의 경우에는 일반사회단체가 30.3%를 점유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19.4%), 일반인(9.6%), 교육계(8.4%), 금융계(6.0%) 순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의 경우, 공무원(22.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사회단체(20.9%), 일반인(8.7%), 경찰법조계(7.1%), 교육계(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민일보는 공무원(21.7%), 일반사회단체(18.9%), 교육계(8.8%), 일반인(8.4%), 기초단체장(7.6%) 순으로 나타나 한라일보와 제민일보에서는 공무원의 비중이 상

18) 예시 1) 인사나누기 캠페인 ▲양화순 제주시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장과 회원들은 5일 관내 신천지아파트 등지에서 동민간 인사나누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예시 2) 불우노인 급식봉사 ▲강옥자 제주시 아라동 새마을부녀회장과 회원들은 5일 제주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제주시내 불우노인 8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봉사 활동을 벌였다(제주신문 1996년 2월 6일).

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주일보의 경우, 다른 두 신문에 비해 1·2·3차 산업 종사자와 일반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신문 모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정부, 정치인 등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제주지역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일간지 <사람면>을 분석한 연구(변달수, 1998)와 비교해 본 결과, 중앙일간지의 경우 <사람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유형으로 일반사회단체장이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교수·연구원(13.6%), 언론인(9.4%), 학회장(6.9%), 기업인(5.7%), 국회의원(4.2%), 장·차관(3.6%), 예·체능인(3.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건·사고 기사나 정계, 재계, 관계 소식은 별도 고유의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시민단체, 사회단체의 소식이 가장 많이 실리게 되었다고 추론하였다. 한편 김우룡(1993)은 <사람면> 등장인물의 직업유형이 교수·연구원(22.7%), 일반사회단체장(10.5%), 장·차관(10.1%), 기업인(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중앙일간지나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에 등장하는 주요 직업유형은 일반인보다는 고위 행정관료, 엘리트 집단 등 특정한 계층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분석

<사람면> 등장인물의 직업유형에 따라 이들이 어떤 지위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위를 공직자(고위관리자), 공직자(중간관리자), 공직자(하위관리자), 정치계, 경제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 일반인 등 8개 하부유목으로 분류하여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지위분포를 알아보았다. 이들 가운데 공직자를 굳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제주지역의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지위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에 근거, 직렬별 공무원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참조하여 공직자(고위관리자)는 1~3급, 공직자(중간관리자)는 4~5급, 공직자(하위관리자)는 7급 이하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표 5-2>에서는 각 신문에서 보도되는 사람들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신문사와 지위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2〉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지위분포(단위: 건수, ()안은 %)

구분	공직자 (고위관리자)	공직자 (중간관리자)	공직자 (하위관리자)	정치계	경제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	일반인	합계
제주일보	213 (9.6)	570 (25.6)	63 (2.8)	71 (3.2)	213 (9.6)	29 (1.3)	751 (33.7)	316 (14.2)	2228 (100.0)
한라일보	290 (19.0)	308 (20.2)	45 (3.0)	108 (7.1)	163 (10.7)	46 (3.0)	390 (25.6)	175 (11.5)	1525 (100.0)
제민일보	365 (22.6)	313 (19.4)	41 (2.5)	103 (6.4)	174 (10.8)	46 (2.9)	389 (24.1)	181 (11.2)	1612 (100.0)
전체	868 (16.2)	1191 (22.2)	149 (2.8)	282 (5.3)	550 (10.3)	121 (2.3)	1530 (28.5)	672 (12.5)	5363 (100.0)

* $\chi^2 = 223.904$ df=14 p<.000

분석결과 〈사람면〉 등장인물의 지위는 협회 및 단체가 28.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공직자(중간관리자)가 22.2%, 공직자(고위관리자)가 16.2%, 일반인(12.5%), 경제계(10.3%)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2.3%)나 공직자(하위관리자)(2.8%)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협회 및 단체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과거 단체 위주의 행사를 개인을 초점으로 기사화 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가지 유형의 공직자를 모두 합하면 전체의 41.2%를 점유, 타 유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지위유형을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주일보의 경우, 협회 및 단체(33.7%)와 공직자(중간관리자)(25.6%), 일반인(14.2%)의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공직자(고위관리자)는 9.6%로 다소 낮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라일보는 협회 및 단체(25.6%), 공직자(중간관리자)(20.2%), 공직자(고위관리자)(19.0%), 일반인(11.5%) 순으로, 제민일보는 협회 및 단체(24.1%), 공직자(고위관리자)(22.6%), 공직자(중간관리자)(19.4%), 일반인(11.2%) 순으로 나타나 제주일보에 비해 공직자 그룹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일반인의 비율은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일보의 공직자 비율이 38.0%, 한라일보가 42.2%, 제민일보가 44.5%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에서도 시사하듯이 제주일보의 경우, 다른 두 신문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성별 분석

미디어와 성별에 관한 문헌들에서는 미디어의 출연 빈도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앙일간지에 보도되는 인물뉴스의 특성 연구(이완수, 2006)에 따르면 인물의 성별에 있어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5-3>에서는 신문사 간 <사람면> 등장인물의 성별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5-3>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성별분포(단위: 건수, ()안은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제주일보	1912(85.9)	314(14.1)	2226(100.0)
한라일보	1359(89.1)	166(10.9)	1525(100.0)
제민일보	1454(90.2)	158(9.8)	1612(100.0)
전체	4725(88.1)	638(11.9)	5363(100.0)

* $\chi^2 = 18.607$ df=2 p<.000

<표 5-3>를 보면 <사람면> 등장인물의 성별에 있어 제주일보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타 신문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이완수(2006)의 논문에서도 개인의 치적, 행사 그리고 활동사항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돼 온 동정란에 등장한 인물들의 성별 비교에서는 차이가 더욱 벌어져 남성이 96%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4~5%에 불과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제주지역 일간지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행정 관료나 엘리트층의 성별분포에 있어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이처럼 매체의 남녀간 등장 빈도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이완수(2006)는 여성들의 활동이 적은 탓도 있지만,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디어 접근에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신문사별 성별분포에서 보면, 제주일보가 14.1%를 차지, 다른 두 신문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평균 분포인 11.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일보에서는 미미하게나마 다양한 여성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지면위치에 따른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분석

같은 비중, 같은 제목의 기사라도 지면의 어느 곳에 배치하는가에 따라 뉴스가치가 다르게 판명된다. 독자의 눈길이 잘 가는 ‘주시지역(primary optical area)’의 기사와 눈길이 덜 가는 ‘사각지대(fallow area)’의 기사는 독자의 반응에 큰 차이가 있다(이배영 외, 2001, 72쪽). 기사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도는 지면에서의 위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편집이란 취재된 현실 그 자체를 각각 다른 값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신문사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규모의 일이 서로 다른 크기로 신문에 보도되는가 하면, 같은 사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일정하게 각기 다른 지면에 보도되기도 한다(정연구, 2005). 특히 보다 중요한 가치를 두는 기사는 시각적으로 눈이 잘 가는 곳에 배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로쓰기 신문의 경우, 기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위치한 기사가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면> 등장인물이 지면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 인물의 중요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사의 특성상 지면 할애면적에 따라 다양한 배치를 보이고 있어 중요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박스기사나 취재기사를 제외한 1단 단신기사 가운데 인물 동정이 시작되는 기사를 중심으로 첫 번째 기사에 중요도 1을 부여, 두 번째 기사에 중요도 2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1을 더하여 다섯 번째 기사까지만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5-4>에서는 신문지면에서 등장인물의 위치에 따라 해당 인물의 직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5-4> 지면위치 중요도에 따른 등장인물의 직업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중앙 정부	광역 단체 장	기초 단체 장	지방 의회	정치 인	공무 원	교육 계	경찰 법조 계	금융 계	의료 계	문화 예술 종교 계	전문 가	기업 및 유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일반 사회 단체	1차 산업 종사 자	2,3 차산 업종 사자	일반 인	합계
중요 도1	9 (1.9)	65 (13.4)	104 (21.5)	54 (11.2)	24 (5.0)	59 (12.2)	57 (11.8)	36 (7.4)	12 (2.5)	5 (1.0)	2 (0.4)	2 (0.4)	13 (2.7)	0 (0.0)	33 (6.8)	1 (0.2)	2 (0.4)	6 (1.2)	484 (100.0)
중요 도2	4 (0.9)	0 (0.0)	59 (13.5)	35 (8.0)	7 (1.6)	93 (21.3)	56 (12.8)	51 (11.7)	28 (6.4)	8 (1.8)	11 (2.5)	0 (0.0)	20 (4.6)	0 (0.0)	51 (11.7)	6 (1.4)	2 (0.5)	6 (1.4)	437 (100.0)
중요 도3	2 (0.6)	0 (0.0)	29 (8.1)	32 (8.9)	3 (0.8)	82 (22.8)	44 (12.3)	31 (8.6)	28 (7.8)	7 (1.9)	5 (1.4)	3 (0.8)	12 (3.3)	0 (0.0)	67 (18.7)	4 (1.1)	4 (1.1)	6 (1.7)	359 (100.0)
중요 도4	0 (0.0)	0 (0.0)	15 (5.4)	13 (4.7)	2 (0.7)	60 (21.7)	32 (11.6)	18 (6.5)	26 (9.4)	3 (1.1)	14 (5.1)	1 (0.4)	13 (4.7)	0 (0.0)	58 (21.0)	2 (0.7)	2 (0.7)	17 (6.2)	276 (100.0)
중요 도5	1 (0.5)	1 (0.5)	3 (1.4)	7 (3.3)	0 (0.0)	38 (18.1)	19 (9.0)	14 (6.7)	18 (8.6)	8 (3.8)	5 (2.4)	1 (0.5)	15 (7.1)	0 (0.0)	53 (25.2)	4 (1.9)	8 (3.8)	15 (7.1)	210 (100.0)
전체	16 (0.9)	66 (3.7)	210 (11.9)	141 (8.0)	36 (2.0)	332 (18.8)	208 (11.8)	150 (8.5)	112 (6.3)	31 (1.8)	37 (2.1)	7 (0.4)	73 (4.1)	0 (0.0)	262 (14.8)	17 (1.0)	18 (1.0)	50 (2.8)	1766 (100.0)

* $\chi^2 = 486.087$ df=64 p<.000

지면위치 상 중요도 1부터 중요도 5까지 랭크된 총 1,766건의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유형은 공무원으로 무려 18.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사회단체(14.8%), 기초단체장(11.9%), 교육계(11.8%), 경찰법조계(8.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사회단체(0.0%), 전문가(0.4%), 중앙정부(0.9%), 2·3차 산업 종사자(1.0%), 1차 산업 종사자(1.0%)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중요도 1에 속한 직업유형은 기초단체장(21.5%), 광역단체장(13.4%), 공무원(12.2%), 교육계(11.8%), 지방의회(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단체장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의 수장인 도지사(광역단체장)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 2에 속한 직업유형은 공무원(21.3%), 기초단체장(13.5%), 교육계(12.8%), 경찰법조계(11.7%), 일반사회단체(1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 3에 속한 직업유형은 공무원(22.8%), 일반사회단체(18.7%), 교육계(12.3%), 지방의회(8.9%), 경찰법조계(8.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

4에 속한 직업유형은 공무원(21.7%), 일반사회단체(21.0%), 교육계(11.6%) 순으로, 중요도 5에 속한 직업유형은 일반사회단체(25.2%), 공무원(18.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정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정치인 등은 주로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육계, 경찰법조계 종사자들은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종교계나 기업 및 유관단체, 일반사회단체나 1·2·3차 산업종사자, 일반인들은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정한 목적 없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각 마을단위의 부녀회, 청년회,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일반사회단체에 비해 특정 사안에 대해 사회 변화를 견인할 목적으로 형성되는 시민사회단체가 한 건도 잡히지 않은 것은 주목해 볼만한 일이다.

5) 지면위치에 따른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분석

앞서 중요도 1에서 중요도 5까지에 분포된 기사들은 지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직업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지면위치에 따른 등장인물의 지위유형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기울여진다.

신문은 발생한 모든 일들을 보도할 만한 지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신문에 실리는 기사는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기사가 갖는 상대적 가치에 따라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어떤 기사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중요한 기사에 밀려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사가 특별한 뉴스가 없는 날에는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면 위치는 그 해당 일에 어떤 사람이 게재되었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다음의 <표 5-5>에서는 지면위치에 따라 등장인물의 지위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5> 지면위치 중요도에 따른 등장인물의 지위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공직자 (고위관리자)	공직자 (중간관리자)	공직자 (하위관리자)	정치계	경제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	일반인	합계
중요도1	277 (57.2)	53 (11.0)	2 (0.4)	78 (16.1)	18 (3.7)	2 (0.4)	46 (9.5)	8 (1.7)	484 (100.0)
중요도2	150 (34.4)	116 (26.5)	4 (0.9)	42 (9.6)	45 (10.3)	4 (0.9)	65 (14.9)	11 (2.5)	437 (100.0)
중요도3	80 (22.3)	100 (27.9)	3 (0.8)	35 (9.7)	39 (10.9)	9 (2.5)	81 (22.6)	12 (3.3)	359 (100.0)
중요도4	34 (12.3)	87 (31.5)	4 (1.4)	15 (5.4)	40 (14.5)	2 (0.7)	70 (25.4)	24 (8.7)	276 (100.0)
중요도5	10 (4.8)	63 (30.0)	5 (2.4)	7 (3.3)	29 (13.8)	4 (1.9)	65 (31.0)	27 (12.9)	210 (100.0)
전체	551 (31.2)	419 (23.7)	18 (1.0)	177 (10.0)	171 (9.7)	21 (1.2)	327 (18.5)	82 (4.6)	1766 (100.0)

* $\chi^2 = 426.884$ df=28 p<.000

지면위치 상 중요도 1부터 중요도 5까지 랭크된 총 1,766건의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계층은 공직자(고위관리자)가 3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직자(중간관리자)가 23.7%, 협회 및 단체(18.5%), 정치계(10.0%), 경제계(9.7%)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중요도 1에 속한 지위유형은 공직자(고위관리자)가 57.2%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계(16.1%), 공직자(중간관리자)(11.0%), 협회 및 단체(9.5%) 순으로 분포되었다. 중요도 2에 속한 지위유형 역시 공직자(고위관리자)가 34.4%의 점유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공직자(중간관리자)(26.5%), 협회 및 단체(14.9%), 경제계(10.3%), 정치계(9.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 3에 속한 지위유형은 공직자(중간관리자)가 27.9%, 협회 및 단체(22.6%), 공직자(고위관리자)(22.3%), 경제계(10.9%) 순으로, 중요도 4에 속하는 지위유형은 공직자(중간관리자)(31.5%), 협회 및 단체(25.4%) 순으로, 중요도 5에 속하는 지위유형은 협회 및 단체(31.0%), 공직자(중간관리자)(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공직자(고위관리자)나 정치계 집단의 사람들은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 공직자(중간관리자)나 경제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 집단의 사람들은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직자(하위관

리자)나 일반인은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놀랄 만한 사실은 중요도 1부터 중요도 5까지에 체크되는 인물의 대다수가 공무원 집단(55.9%)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무원을 포함한 엘리트 계층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넘고, 그밖에 단체나 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있어 지면 접근 비율은 전체의 5%가 채 안되는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언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비교적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지면위치에 따른 등장인물의 성별 분석

앞서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다수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면위치에 따른 성별의 분포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표 5-6>에서는 지면위치와 성별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6> 지면위치 중요도에 따른 등장인물의 성별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중요도1	471(97.3)	13(2.7)	484(100.0)
중요도2	424(97.0)	13(3.0)	437(100.0)
중요도3	339(94.4)	20(5.6)	359(100.0)
중요도4	249(90.2)	27(9.8)	276(100.0)
중요도5	190(90.5)	20(9.5)	210(100.0)
전체	1673(94.7)	93(5.3)	1766(100.0)

* $\chi^2 = 30.040$ df=4 p<.000

앞서 <사람면> 등장인물의 성별분포에서도 보았듯이 지면위치에 있어서도 남성의 비율은 전체의 95%에 육박하여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주로 중요도가 높은 위치에 게재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주로 중요도가 낮은 위치에 게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물의 직업유형과 사회적 지위와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업유형이나 지

위에 있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

■ 연구문제 2 : 각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는 무엇이며 관련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가?

1)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 분석

다음의 <표 5-7>에서는 신문사간 <사람면> 등장인물의 주된 기사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사와 기사주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7> 신문사별 기사주제 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회의 개최	회의 참석	행사 개최	행사 참석	기념식 개최	기념식 참석	격려 /당부	인사 이동	수상 /수여	봉사 활동	사회 사업	기타	합계
제주 일보	359 (16.1)	91 (4.1)	345 (15.5)	52 (2.3)	107 (4.8)	29 (1.3)	273 (12.3)	146 (6.6)	131 (5.9)	274 (12.3)	414 (18.6)	5 (0.2)	2226 (100.0)
한라 일보	123 (8.1)	99 (6.5)	219 (14.4)	99 (6.5)	35 (2.3)	32 (2.1)	233 (15.3)	205 (13.4)	153 (10.0)	98 (6.4)	223 (14.6)	6 (0.4)	1525 (100.0)
제민 일보	149 (9.2)	77 (4.8)	260 (16.1)	103 (6.4)	46 (2.9)	35 (2.2)	266 (16.5)	185 (11.5)	153 (9.5)	89 (5.5)	247 (15.3)	2 (0.1)	1612 (100.0)
전체	631 (11.8)	267 (5.0)	824 (15.4)	254 (4.7)	188 (3.5)	96 (1.8)	772 (14.4)	536 (10.0)	437 (8.1)	461 (8.6)	884 (16.5)	13 (0.2)	5363 (100.0)

* $\chi^2 = 304.988$ df=22 p<.000

<표 5-7>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수치로 볼 때, 사회사업이 1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행사개최(15.4%), 격려/당부(14.4%), 회의개최(11.8%), 인사이동(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주일보의 경우, 사회사업(18.6%), 회의개최(16.1%), 행사개최(15.5%), 봉사활동과 격려/당부가 각각 12.3%의 비율을 점유, 그 뒤를 이었다. 한라일보의 경우에는 격려/당부(16.5%), 사회사업(14.6%), 행사개최

(14.4%), 인사이드(13.4%) 순으로 나타났고, 제민일보의 경우에는 격려/당부(16.5%), 행사개최(16.1%), 사회사업(15.3%), 인사이드(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단체 간 협약, 기술이전, 개발, 별세 등의 기사주제는 타 유목에 포함하기 어려워 기타(0.2%)로 분류하였다.

인물뉴스의 특성을 연구한 이완수(2006)는 뉴스 내용에 대한 분석을 뉴스 특성을 알아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파악, 인물 뉴스 주제를 크게 공공성과 개인성으로 구분하였는데, 공공성 뉴스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공중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뉴스로, 개인성 뉴스는 일반 공중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일상행사나 대외 PR용에 해당되는 성격의 뉴스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인 자원봉사, 행사 연설, 헌혈 등 공공성 뉴스는 중앙일간지의 동정란 폐지 이후에 오히려 그 빈도가 줄어든 반면 수상, 방문, 임명, 선출 등과 같은 개인성 PR뉴스는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제주지역 일간지의 <사람면>은 행사 및 기념식 참석, 격려/당부, 인사이드, 수상/수여 등 개인의 근황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다 중요한 뉴스 가치가 있는 기사의 경우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등에 실고, <사람면>에서는 다소 가벼운 기사들을 배치하는 관행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한편 인물뉴스의 기사유형과 관련하여 중앙일간지를 분석했던 변달수(1998)의 연구에서는 안내 및 고지(33.4%), 모임참석(27.6%), 모임개최(14.6%), 인사이드(11.8%), 수상(8.0%), 입·출국(2.3%), 출간(1.7%) 순으로, 김우룡(1993)의 연구에서는 모임개최(22.7%), 입·출국(17.2%), 사회사업(11.1%), 예방(9.3%)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뤄볼 때, 기사주제에 있어 제주지역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사주제로 분류한 유목 대다수가 다소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 특정 계층의 인물이 공적인 업무로 인해 회의를 개최하고 행사에 참석하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이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며 수상 혹은 수여할 기회를 갖게 되고, 봉사 활동이나 사회사업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사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기사화되느냐에 따라 기사주제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2)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사진제시 분석

기사에서 사진이나 그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은 누구나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사진은 독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이진우, 2004, 24쪽). 특히 보도사진이 일반뉴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뉴스와는 달리 말 대신에 사진이라는 시각적 언어를 표현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강상현, 2002, 115쪽). 따라서 등장인물의 단순한 증명사진일지라도 관련 사진의 제시를 통해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아래의 <표 5-8>에서는 <사람면> 등장인물 기사에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지, 어떤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5-8> 신문사별 사진제시 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증명사진	취재사진	없음	합계
제주일보	1798(80.6)	47(2.1)	385(17.3)	2226(100.0)
한라일보	1096(71.9)	88(5.8)	341(22.4)	1525(100.0)
제민일보	1161(72.0)	69(4.3)	382(23.7)	1612(100.0)
전체	4051(75.5)	204(3.8)	1108(20.7)	5363(100.0)

* $\chi^2 = 67.645$ df=4 p<.000

분석 결과 증명사진의 제시가 전체의 75.5%를 차지, 대부분 증명사진 크기의 사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제주일보(80.6%)의 경우, 다른 두 신문사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는 한정된 지면에 보다 많은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단순한 동정 위주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기사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단순한 일회성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전에 관련 사진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행은 각 신문사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사진을 게재하기 때문에 다소 시의성이 떨어진 사진들이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사전에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게재되면서 동명이인에 대한 오보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같은 날에 각 신문사별로 동일한 보도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선택함으로써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신문사 자체적으로 구축해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진을 게재함에 따라 신문사별로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진을 보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물에 대한 혼란도 있었다.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

■ 연구문제 3 : 각 연도별 등장인물의 유형과 기사주제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1) 연도별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분석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직업유형이 생겨나면서 시대별, 시기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각 연도별 <사람면> 등장인물의 직업유형을 분석해 보면, 각 연도별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 왔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표 5-9>에서는 연도별로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5-9> 연도별 등장인물의 직업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중앙 정부	광역 단체 장	기초 단체 장	지방 의회	정치 인	공무 원	교육 계	경찰 법조 계	금융 계	의료 계	문화 예술 종교 계	전문 가	기업 및 유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일반 사회 단체	1차 산업 종사 자	2,3 차산 업종 사자	일반 인	합계
제 주	1 (0.1)	5 (0.4)	24 (2.0)	21 (1.8)	1 (0.1)	210 (17.8)	64 (5.4)	37 (3.1)	71 (6.0)	29 (2.5)	17 (1.4)	0 (0.0)	25 (2.1)	1 (0.1)	491 (41.6)	23 (2.0)	28 (2.4)	131 (11.1)	1179 (100.0)
1 9 9	3 (0.4)	15 (2.0)	36 (4.8)	53 (7.0)	9 (1.2)	154 (20.4)	42 (5.6)	42 (5.6)	57 (7.5)	3 (0.4)	19 (2.5)	1 (0.1)	28 (3.7)	0 (0.0)	198 (26.2)	3 (0.4)	23 (3.0)	69 (9.1)	755 (100.0)
6 년	4 (0.5)	18 (2.4)	64 (8.5)	56 (7.4)	9 (1.2)	157 (20.8)	40 (5.3)	34 (4.5)	50 (6.6)	5 (0.7)	21 (2.8)	2 (0.3)	21 (2.8)	0 (0.0)	182 (24.1)	8 (1.1)	22 (2.9)	61 (8.1)	754 (100.0)
전 체	8 (0.3)	38 (1.4)	124 (4.6)	130 (4.8)	19 (0.7)	521 (19.4)	146 (5.4)	113 (4.2)	178 (6.6)	37 (1.4)	57 (2.1)	3 (0.1)	74 (2.8)	1 (0.0)	871 (32.4)	34 (1.3)	73 (2.7)	261 (9.7)	2688 (100.0)
2 0	10 (1.3)	10 (1.3)	44 (5.9)	25 (3.3)	8 (1.1)	143 (19.1)	95 (12.7)	32 (4.3)	36 (4.8)	28 (3.7)	22 (2.9)	6 (0.8)	31 (4.1)	0 (0.0)	152 (20.3)	9 (1.2)	33 (4.4)	64 (8.6)	748 (100.0)

2001년	한라	7 (1.3)	20 (3.6)	41 (7.4)	30 (5.4)	4 (0.7)	138 (24.9)	40 (7.2)	52 (9.4)	25 (4.5)	3 (0.5)	8 (1.4)	1 (0.2)	33 (6.0)	1 (0.2)	95 (17.1)	8 (1.4)	8 (1.4)	40 (7.2)	554 (100.0)
	주민	6 (1.0)	18 (3.0)	48 (8.0)	16 (2.7)	4 (0.7)	133 (22.1)	86 (14.3)	35 (5.8)	18 (3.0)	8 (1.3)	21 (3.5)	0 (0.0)	37 (6.1)	0 (0.0)	99 (16.4)	5 (0.8)	10 (1.7)	58 (9.6)	602 (100.0)
	전체	23 (1.2)	48 (2.5)	133 (7.0)	71 (3.7)	16 (0.8)	414 (21.7)	221 (11.6)	119 (6.3)	79 (4.1)	39 (2.0)	51 (2.7)	7 (0.4)	101 (5.3)	1 (0.1)	346 (18.2)	22 (1.2)	51 (2.7)	162 (8.5)	1904 (100.0)
2006년	제주	5 (1.7)	4 (1.3)	10 (3.3)	14 (4.7)	4 (1.3)	79 (26.4)	27 (9.0)	43 (14.4)	28 (9.0)	6 (2.0)	3 (1.0)	3 (1.0)	18 (6.0)	0 (0.0)	32 (10.7)	2 (0.7)	4 (1.3)	18 (6.0)	299 (100.0)
	한라	2 (0.9)	2 (0.9)	6 (2.8)	10 (4.6)	2 (0.9)	50 (23.1)	18 (8.3)	14 (6.5)	19 (8.8)	6 (2.8)	8 (3.7)	5 (2.3)	24 (11.1)	0 (0.0)	26 (12.0)	0 (0.0)	1 (0.5)	23 (10.6)	216 (100.0)
	주민	0 (0.0)	1 (0.4)	10 (3.9)	11 (4.3)	6 (2.3)	59 (23.0)	16 (6.3)	25 (9.8)	36 (14.1)	4 (1.6)	7 (2.7)	5 (2.0)	31 (12.1)	0 (0.0)	24 (9.4)	2 (0.8)	3 (1.2)	16 (6.3)	256 (100.0)
	전체	7 (0.9)	7 (0.9)	26 (3.4)	35 (4.5)	12 (1.6)	188 (24.4)	61 (7.9)	82 (10.6)	82 (10.6)	16 (2.1)	18 (2.3)	13 (1.7)	73 (9.5)	0 (0.0)	82 (10.6)	4 (0.5)	8 (1.0)	57 (7.4)	771 (100.0)

*1996년 : $\chi^2 = 224.979$ df=34 p<.000

*2001년 : $\chi^2 = 107.339$ df=34 p<.000

*2006년 : $\chi^2 = 42.283$ df=32 p<.106

연도별 <사람면>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변화를 보면, 1996년의 경우 일반사회단체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19.2%), 일반인(9.7%), 금융계(6.6%), 교육계(5.4%)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공무원(21.7%), 일반사회단체(18.2%), 교육계(11.6%), 일반인(8.5%), 기초단체장(7.0%) 순으로 나타났고, 2006년에는 공무원(24.4%), 경찰법조계와 금융계, 일반사회단체가 각각 10.6%, 기업 및 유관단체(9.5%)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직업유형의 추이를 보면, 1996년에서부터 2006년으로 올수록 공무원, 교육계, 경찰법조계, 의료계, 문화·예술·종교계, 전문가, 기업 및 유관단체의 비율은 높아졌으나 일반사회단체, 1차 산업 종사자, 2·3차 산업 종사자, 일반인의 보도비중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밖의 다른 유목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 집단의 경우, 1996년에 19.4%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2001년에 21.7%, 2006년에 24.7%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계와 경찰법조계, 기업 및 유관단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일반사회단체의 경우, 1996년에 32.4%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2001년에 18.2%, 2006년에 10.6%를 차지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1차 산업 종사자의

경우, 1996년 1.3%, 2001년 1.2%, 2006년 0.5%의 점유율을 보이는 등 점차 감소하였고, 2·3차 산업 종사자와 일반인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현대로 올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광역단체장의 보도비율이 1996년에 1.4%였다가 2001년에 2.5%, 2006년에는 0.9%로 나타난 점과 기초단체장의 보도비율이 1996년에 4.6%를 차지, 2001년에 7.0%, 2006년에 3.4%로 소폭의 감소경향을 보인 것은 <사람면> 게이트키퍼와의 심층면접에서 밝혀졌듯이 인물 동정에 있어 지자체단체장의 비율이 높다는 독자들의 지적에 따라 이를 지면편집에 반영한 데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포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개편, 모든 권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됨에 따라 자연히 <사람면>에서도 도지사의 등장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했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근거를 찾을만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비율이 1996년에 1.4%를 차지, 2001년 2.5%, 2006년에는 0.7%로 집계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각 신문사의 연도별 추이에서는, 제주일보의 경우 중앙정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정치인, 공무원 등 대부분의 집단에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일반사회단체, 1·2·3차 산업 종사자, 일반인 집단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한라일보에서는 공무원, 교육계, 전문가, 기업 및 유관단체 등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앙정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경찰·법조계, 1차 산업 종사자 등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이다 다시 감소하였으며, 지방의회, 일반사회단체, 2·3차 산업 종사자 등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정치인, 금융계, 문화·예술·종교계, 일반인 등에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민일보에서는 공무원, 경찰·법조계, 의료계, 기업 및 유관단체에서는 증가추세를 기초단체장, 일반사회단체, 1차 산업 종사자, 2·3차 산업 종사자에서는 감소하였고, 중앙정부, 광역단체장, 교육계, 문화·예술·종교계, 일반인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 지방의회, 정치인, 금융계, 전문가 집단에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사람면> 게이트키퍼와의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세 신문사 모두 <사람면>이 특별한 게재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지역밀착형 보도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빈번히 게재되는 인물이나 단체의 보도를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아직도 권력 중심형 편집행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 혹은 단체에서 보내오는 과도한 보도 자료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연·혈연·학연 등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관계들이 응집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완수(2006)는 인물 뉴스는 다른 뉴스 장르에 비해 구조적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피력하며 미디어 조직 내부적 요인보다 사회적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연도별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분석

어느 시기에든 그 사회집단의 중심에서 그 집단을 견인해 가는 오피니언 리더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미디어는 항상 이들의 편에 서서 사회의 중심을 조망한다. 다음의 <표 5-10>에서는 연도별 <사람면> 등장인물의 지위에는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5-10> 연도별 등장인물의 지위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공직자 (고위관리자)	공직자 (중간관리자)	공직자 (하위관리자)	정치계	경제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	일반인	합계	
1999년	제주	58 (4.9)	261 (22.1)	25 (2.1)	20 (1.7)	96 (8.1)	9 (0.8)	533 (45.2)	177 (15.0)	1179 (100.0)
	한라	114 (15.1)	150 (19.9)	12 (1.6)	62 (8.2)	75 (9.9)	15 (2.0)	232 (30.7)	95 (12.6)	755 (100.0)
	제민	162 (21.5)	133 (17.6)	16 (2.1)	66 (8.8)	69 (9.2)	9 (1.2)	212 (28.1)	87 (11.5)	754 (100.0)
	전체	334 (12.4)	544 (20.2)	53 (2.0)	148 (5.5)	240 (8.9)	33 (1.2)	977 (36.3)	359 (13.4)	2688 (100.0)
2001년	제주	105 (14.0)	216 (28.9)	24 (3.2)	33 (4.4)	77 (10.3)	5 (0.7)	174 (23.3)	114 (15.2)	748 (100.0)
	한라	134 (24.2)	126 (22.7)	22 (4.0)	34 (6.1)	52 (9.4)	13 (2.3)	121 (21.8)	52 (9.4)	554 (100.0)
	제민	142 (23.6)	147 (24.4)	19 (3.2)	20 (3.3)	44 (7.3)	20 (3.3)	136 (22.6)	74 (12.3)	602 (100.0)
	전체	381 (20.0)	489 (25.7)	65 (3.4)	87 (4.6)	173 (9.1)	38 (2.0)	431 (22.6)	240 (12.6)	1904 (100.0)

2006년	제	50	93	14	18	40	15	44	25	299
	주	(16.7)	(31.1)	(4.7)	(6.0)	(13.4)	(5.0)	(14.7)	(8.4)	(100.0)
	한	42	32	11	12	36	18	37	28	216
	라	(19.4)	(14.8)	(5.1)	(5.6)	(16.7)	(8.3)	(17.1)	(13.0)	(100.0)
	제	61	33	6	17	61	17	41	20	256
	민	(23.8)	(12.9)	(2.3)	(6.6)	(23.8)	(6.6)	(16.0)	(7.8)	(100.0)
	전	153	158	31	47	137	50	122	73	771
	체	(19.8)	(20.5)	(4.0)	(6.1)	(17.8)	(6.5)	(15.8)	(9.5)	(100.0)

*1996년 : $\chi^2 = 226.654$ df=14 p<.000

*2001년 : $\chi^2 = 57.618$ df=14 p<.000

*2006년 : $\chi^2 = 48.751$ df=14 p<.106

<표 5-10>에서처럼 연도별 등장인물의 지위는 현대로 올수록 공직자와 정치계, 경제계, 전문가 그룹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협회 및 단체, 일반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6년에는 협회 및 단체가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공직자(중간관리자)(20.2%), 일반인(13.4%), 공직자(고위관리자)(12.4%), 경제계(8.9%)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공직자(중간관리자)(25.7%), 협회 및 단체(22.6%), 공직자(고위공직자)(20.0%), 일반인(12.6%), 경제계(9.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공직자(중간관리자)(20.5%), 공직자(고위관리자)(19.8%), 경제계(17.8%), 협회 및 단체(15.8%), 일반인(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가지 유형의 공직자 집단을 합하면 1996년에 34.6%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2001년 49.1%, 2006년 44.3%로 집계되어 10년 전에 비해 약 10%나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계 인사가 1996년 8.9%에서 2001년 9.1%, 2006년 17.8%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전문가 집단 역시 1996년 1.2%에서 2001년 2.0%, 2006년 6.5%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은 교수집단의 연구 활동 등의 기사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협회 및 단체는 1996년 36.3%를 점유한데 반해 2001년에는 22.6%, 2006년에는 15.8%의 점유율을 보여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 인물 동정의 편집형태에서 인물 동정과 단체 동정으로 이분화 시키는 편집형태로 전환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풀이된다. 일반인 역시 1996년에 13.4%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2001년 12.6%, 2006년 9.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사람면>에서는 갈수록 위치가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주일보의 경우, 공직자, 정치계, 경제계,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협회 및 단체, 일반인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한라일보의 경우에는 공직자(고위관리자), 공직자(중간관리자) 그룹에서 다소 증가하다가 감소한 반면 공직자(하위관리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협회 및 단체는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일반인은 다소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민일보는 공직자(고위관리자), 전문가 집단이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공직자(중간관리자)와 공직자(하위관리자), 일반인에서는 다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협회 및 단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연도별 등장인물의 성별 분석

그동안 여성은 어떤 종류의 미디어에서든지 종종 무시되어 왔으나 미디어 수용자나 미디어 기업은 점차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의 영향력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이미지를 변화시켜 나갔다.¹⁹⁾ 이에 따라 현대로 올수록 미디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직업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흐름을 감안하여 <사람면> 등장인물의 연도별 성별분포를 알아보았다.

<표 5-11> 연도별 등장인물의 성별분포(단위: 건수, ()안은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1996년	제주일보	968(82.1)	211(17.9)	1179(100.0)
	한라일보	647(85.7)	108(14.3)	755(100.0)
	제민일보	666(88.3)	88(11.7)	754(100.0)
	전체	2281(84.9)	407(15.1)	2688(100.0)

19) TV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며, 주인공 역할도 남성이 월등히 많다(Fejes, 1992). 또한 1995년 여성은 주요 신문 1면 기사의 19%만을 작성했고, 텔레비전 뉴스 중 20%만을 여성 통신원이 보도했다(Bridge, 1995). 이러한 불평등은 다른 미디어에서도 비일비재했고, 뉴스 보도에서도 여성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통계가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체 뉴스 기사 중 여성에 대한 내용은 20%도 채 안 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그보다 더 비율이 낮으며, 여성에 관한 뉴스 보도가 적은 것은 여성이 비활동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 여성은 가정 내 역할에 치중해 있다는 선입견 때문이다(전석호 역, 「미디어 소사이어티」, 2001).

2001년	제주일보	670(89.6)	78(10.4)	748(100.0)
	한라일보	517(93.3)	37(6.7)	554(100.0)
	제민일보	551(91.5)	51(8.5)	602(100.0)
	전체	1738(91.3)	166(8.7)	1904(100.0)
2006년	제주일보	274(91.6)	25(8.4)	299(100.0)
	한라일보	195(90.3)	21(9.7)	216(100.0)
	제민일보	237(92.6)	19(7.4)	256(100.0)
	전체	706(91.6)	65(8.4)	771(100.0)

*1996년 : $\chi^2 = 14.444$ df=2 p<.001

*2001년 : $\chi^2 = 5.689$ df=2 p<.058

*2006년 : $\chi^2 = 0.806$ df=2 p<.668

분석결과 <표 5-11>에서와 같이 현대로 올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남성의 비율이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사람면> 등장인물의 성별 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연도별, 신문사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한라일보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1996년에는 14.3%, 2001년에는 6.7%, 2006년에는 9.7%로 나타나 다소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직업유형이 다양하지 못한 제주지역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4) 연도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 분석

사건·사고가 많지 않고 조직화된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시기에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읍·면 단위의 장들이 행하는 소소한 일상이나 각 마을의 부녀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보도가 주를 이루어왔으나,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기사주제와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의 <표 5-12>에서는 연도별 <사람면> 등장인물의 기사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각 연도별로 신문사와 기사주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12> 연도별 기사주제 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회의 개최	회의 참석	행사 개최	행사 참석	기념식 개최	기념식 참석	격려 /당부	인사 이동	수상 /수여	봉사 활동	사회 사업	기타	합계	
1996년	제주	241 (20.4)	18 (1.5)	201 (17.0)	24 (2.0)	44 (3.7)	15 (1.3)	139 (11.8)	35 (3.0)	33 (2.8)	212 (18.0)	217 (18.4)	0 (0.0)	1179 (100.0)
	한라	75 (9.9)	40 (5.3)	122 (16.2)	55 (7.3)	19 (2.5)	19 (2.5)	110 (14.6)	69 (9.1)	43 (5.7)	72 (9.5)	127 (16.8)	4 (0.5)	755 (100.0)
	제민	87 (11.5)	33 (4.4)	132 (17.5)	56 (7.4)	20 (2.7)	22 (2.9)	109 (14.5)	63 (8.4)	48 (6.4)	66 (8.8)	118 (15.6)	0 (0.0)	754 (100.0)
	전체	403 (15.0)	91 (3.4)	455 (16.9)	135 (5.0)	83 (3.1)	56 (2.1)	358 (13.3)	167 (6.2)	124 (4.6)	350 (13.0)	462 (17.2)	4 (0.1)	2688 (100.0)
2001년	제주	92 (12.3)	43 (5.7)	118 (15.8)	12 (1.6)	44 (5.9)	7 (0.9)	90 (12.0)	68 (9.1)	60 (8.0)	49 (6.6)	165 (22.1)	0 (0.0)	748 (100.0)
	한라	43 (7.8)	47 (8.5)	80 (14.4)	27 (4.9)	7 (1.3)	10 (1.8)	96 (17.3)	81 (14.6)	69 (12.5)	22 (4.0)	71 (12.8)	1 (0.2)	554 (100.0)
	제민	47 (7.8)	30 (5.0)	93 (15.4)	22 (3.7)	5 (0.8)	7 (1.2)	125 (20.8)	80 (13.3)	67 (11.1)	18 (3.0)	106 (17.6)	2 (0.3)	602 (100.0)
	전체	182 (9.6)	120 (6.3)	291 (15.3)	61 (3.2)	56 (2.9)	24 (1.3)	311 (16.3)	229 (12.0)	196 (10.3)	89 (4.7)	342 (18.0)	3 (0.2)	1904 (100.0)
2006년	제주	26 (8.7)	30 (10.0)	26 (8.7)	16 (5.4)	19 (6.4)	7 (2.3)	44 (14.7)	43 (14.4)	38 (12.7)	13 (4.3)	32 (10.7)	5 (1.7)	299 (100.0)
	한라	5 (2.3)	12 (5.6)	17 (7.9)	17 (7.9)	9 (4.2)	3 (1.4)	27 (12.5)	55 (25.5)	41 (19.0)	4 (1.9)	25 (11.6)	1 (0.5)	216 (100.0)
	제민	15 (5.9)	14 (5.5)	35 (13.7)	25 (9.8)	21 (8.2)	6 (2.3)	32 (12.5)	42 (16.4)	38 (14.8)	5 (2.0)	23 (9.0)	0 (0.0)	256 (100.0)
	전체	46 (6.0)	56 (7.3)	78 (10.1)	58 (7.5)	49 (6.4)	16 (2.1)	103 (13.4)	140 (18.2)	117 (15.2)	22 (2.9)	80 (10.4)	6 (0.8)	771 (100.0)

*1996년 : $\chi^2 = 219.330$ df=22 p<.000

*2001년 : $\chi^2 = 125.258$ df=22 p<.000

*2006년 : $\chi^2 = 48.958$ df=22 p<.001

<표 5-12>를 보면, 1996년에는 사회사업(17.2%), 행사개최(16.9%), 회의개최(15.0%), 격려/당부(13.3%), 봉사활동(13.0%) 순으로 나타났고, 2001년에는 사회사업(18.0%), 격려/당부(16.3%), 행사개최(15.3%), 인사이동(12.0%), 수상/수여(10.3%) 순으로, 2006년에는 인사이동(18.2%), 수상/수여(15.2%), 격려/당부(13.4%), 사회사업(10.4%), 행사개최(10.1%)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1996년에는 사회사업, 행사개최, 회의개최 등과 같은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공성을 띤 기사의 비율이 높았으나 현대로 올수록 공공성과 관련된 기사보다는 인사이동, 수상/수여 등과 같은 개인 활동상황 위주의 기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분히 개인적이면서도 각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역할인 회의참석, 행사참석, 격려/당부 등의 기사비율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면>이 다양한 사람들의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반 독자 중심의 지면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인물의 치적, 행적 등을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사가치를 상실한 기사들을 보도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주고 있는 셈이다.

한편 신문사간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제주일보의 경우, 회의개최, 행사개최, 봉사활동 등에서는 점차 감소한 반면 회의참석, 기념식 개최, 격려/당부, 인사이동, 수상/수여 등에서는 점차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사참석과 기념식 참석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고, 사회사업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라일보의 경우에는 인사이동, 수상/수여는 대폭 증가한 반면, 회의개최, 행사개최, 기념식 참석, 봉사활동, 사회사업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회의참석, 격려/당부는 다소 증가하다가 감소하였고, 행사참석과 기념식 개최에 있어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민일보의 경우에는 인사이동, 수상/수여에서는 증가 추세를, 행사개최나 봉사활동에서는 감소 경향을, 행사참석, 기념식 개최, 기념식 참석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격려/당부, 사회사업에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신문사간 연도별 추이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사주제에서 능동성이 감지되는 회의개최, 행사개최, 사회사업, 봉사활동 등의 공적 업무는 다소 감소한 반면 회의참석, 행사참석, 기념식 참석 등과 같은 수동적인 공적 업무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이동이나 수상/수여 등의 개인적 치적과 관련된 기사주제도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여 <사람면> 기사주제의 대부분이 홍보성 기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람면> 게이트키퍼는 개인 PR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자신을 알림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히 <사람면>에 게재 요청을 요구하는 독자들이 많아지고 있

다고 응답한 바 있다.

5) 연도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 재분석

앞서 제시된 기사주제 가운데 이분법적 형태인 회의개최, 회의참석, 행사개최, 행사참석, 기념식 개최, 기념식 참석을 유형별로 통합하여 회의/행사/기념식 개최와 회의/행사/기념식 참석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공적업무에 대한 능동성과 수동성을 보기 위함이다. 다음의 <표 5-13>에서는 연도별 신문사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가 어떻게 다양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5-13> 연도별 기사주제 재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회의/행사/ 기념식 개최	회의/행사/ 기념식 참석	격려/당부	인사이동	수상/수여	봉사활동	사회사업	기타	
1996년	제주일보	486 (41.2)	57 (4.8)	139 (11.8)	35 (3.0)	33 (2.8)	212 (18.0)	217 (18.4)	0 (0.0)
	한라일보	216 (28.6)	114 (15.1)	110 (14.6)	69 (9.1)	43 (5.7)	72 (9.5)	127 (16.8)	4 (0.5)
	제민일보	239 (31.7)	111 (14.7)	109 (14.5)	63 (8.4)	48 (6.4)	66 (8.8)	118 (15.6)	0 (0.0)
	전체	941 (35.0)	282 (10.5)	358 (13.3)	167 (6.2)	124 (4.6)	350 (13.0)	462 (17.2)	4 (0.1)
2000년	제주일보	254 (34.0)	62 (8.3)	90 (12.0)	68 (9.1)	60 (8.0)	49 (6.6)	165 (22.1)	0 (0.0)
	한라일보	130 (23.5)	84 (15.2)	96 (17.3)	81 (14.6)	69 (12.5)	22 (4.0)	71 (12.8)	1 (0.2)
	제민일보	145 (24.1)	59 (9.8)	125 (20.8)	80 (13.3)	67 (11.1)	18 (3.0)	106 (17.6)	2 (0.3)
	전체	529 (27.8)	205 (10.8)	311 (16.3)	229 (12.0)	196 (10.3)	89 (4.7)	342 (18.0)	3 (0.2)
2006년	제주일보	71 (23.7)	53 (17.7)	44 (14.7)	43 (14.4)	38 (12.7)	13 (4.3)	32 (10.7)	5 (1.7)
	한라일보	31 (14.4)	32 (14.8)	27 (12.5)	55 (25.5)	41 (19.0)	4 (1.9)	25 (11.6)	1 (0.5)
	제민일보	71 (27.7)	45 (17.6)	32 (12.5)	42 (16.4)	38 (14.8)	5 (2.0)	23 (9.0)	0 (0.0)
	전체	173 (22.4)	130 (16.9)	103 (13.4)	140 (18.2)	117 (15.2)	22 (2.9)	80 (10.4)	6 (0.8)

*1996년 : $\chi^2 = 195.506$ df=14 p<.000

*2001년 : $\chi^2 = 91.0828$ df=14 p<.000

*2006년 : $\chi^2 = 33.523$ df=14 p<.002

<표 5-1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996년에는 회의/행사/기념식 개최의 비율이 35.0%를 점유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사업(17.2%), 격려/당부(13.3%), 봉사활동(13.0%), 회의/행사/기념식 참석(10.5%)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회의/행사/기념식 개최가 27.8%, 그 다음으로는 사회사업(18.0%), 격려/당부(16.3%), 인사이동(12.0%), 회의/행사/기념식 참석(10.8%) 순으로, 2006년에는 회의/행사/기념식 개최(22.4%), 인사이동(18.2%), 회의/행사/기념식 참석(16.9%), 수상/수여(15.2%), 격려/당부(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적인 업무수행이긴 하나 다양한 회의나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비율은 1996년에 35.0%를 보이다가 2001년에는 27.8%로 2006년에는 22.4%로 나타나 현대로 올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수동적으로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비율은 1996년 10.5%에서 2001년 10.8%, 2006년 17.6%로 나타나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개인의 신상과 관련 있는 인사이동, 수상/수여 등의 기사비율은 현대로 올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사람면>이 점차 개인의 활동상황을 보도하는 공식적인 홍보면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맥매너스(J. McManus, 1995)는 뉴스를 ‘현실의 반영이라기보다 특별한 이해의 집단적 시장수요에 맞추려는 소비재’ 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자들은 우리의 현실과 사상 가운데 수용자들이 가장 알기 원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고영철, 2006). 그러나 회의/행사/기념식 개최 혹은 참석과 같은 공적 업무에 대한 기사화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 격려/당부, 인사이동, 수상/수여 등과 같은 개인적인 활동상황에 대한 주제가 <사람면>에 적합한 주제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를 남겨준다.

한편 신문사간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제주일보의 경우, 회의/행사/기념식 참석, 격려/당부, 인사이동, 수상/수여에서는 증가한 반면 회의/행사/기념식 개최, 봉사활동, 사회사업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라일보는 회의/행사/기념식 참석, 인사이동, 수상/수여 등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회의/행사/기념식 개최, 봉사활동, 사회사업 등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민일보의 경우

에는 인사이동, 수상/수여 등에서는 증가, 봉사활동, 사회사업 등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세 신문 간에는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4. <연구문제 4>에 대한 분석결과

■ 연구문제 4 :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유형과 기사주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1)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유형 분석

<사람면>에서 보도되는 기사는 인물이나 단체의 동정을 3~5줄로 보도하는 1단 단신기사와 그보다 크게 보도되거나 박스처리 된 박스기사, 기자가 직접 취재한 취재기사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이들 기사를 실명 게재 여부에 따라 보도 자료에 의존해서 보도되는 비취재기사와 기자가 직접 취재하여 보도되는 취재기사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5-14>에서처럼 신문사별 기사유형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5-14> 신문사별 기사유형 분포(단위: 건수, ()안은 %)

구분	비취재기사	취재기사	합계
제주일보	2179(97.9)	47(2.1)	2226(100.0)
한라일보	1381(90.6)	144(9.4)	1525(100.0)
제민일보	1536(95.3)	76(4.7)	1612(100.0)
전체	5096(95.0)	267(5.0)	5363(100.0)

* $\chi^2 = 103.159$ df=2 p<.000

<표 5-14>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면> 인물기사는 주로 비취재기사 위주의 보도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주일보의 경우, 비취재기사의 보도비율이 97.9%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높았고, 취재기사는 2.1%로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라일보의 경우, 취재기사의 비율이 9.4%로 집계돼 다른 두 신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신 위주의 기사보도에 의존하는 경향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사람면> 전문 취재 기자와 전문 담당 부서의 부재와 더불어 개인 및 단체, 관공서 등에서 게재를 요청하는 많은 양의 기사들을 한정된 지면에 담아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단순한 동정 보도 차원의 기사를 백화점식 나열형태로 게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출입처별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관행과 <사람면>과 다른 지면, 특히 <사회면>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기사 선정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사람면> 게이트키퍼의 심층면접 내용에 따르면, 대개의 취재기사는 개인의 사사로운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사 혹은 이색적인 기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개별 기사 가운데에서도 다른 면에 배치하기에 행사 성격이 강한 경우 <사람면>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람면>은 행사 위주의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는 셈이다.

2) 연도별/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유형 분석

<표 5-15>에서는 연도별/신문사별 <사람면> 등장인물의 기사유형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5-15> 연도별/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유형 분포(단위: 건수, ()안은 %)

구분		비취재기사	취재기사	합계
1996년	제주일보	1164(98.7)	15(1.3)	1179(100.0)
	한라일보	730(96.7)	25(3.3)	755(100.0)
	제민일보	735(97.5)	19(2.5)	754(100.0)
	전체	2629(97.8)	59(2.2)	2688(100.0)
2001년	제주일보	734(98.1)	14(1.9)	748(100.0)
	한라일보	476(85.9)	75(14.1)	554(100.0)
	제민일보	566(94.0)	36(6.0)	602(100.0)
	전체	281(94.0)	18(6.0)	1904(100.0)
2006년	제주일보	281(94.0)	18(6.0)	299(100.0)
	한라일보	175(81.0)	41(19.0)	216(100.0)
	제민일보	235(91.8)	21(8.2)	256(100.0)
	전체	691(89.8)	80(10.4)	771(100.0)

*1996년 : $\chi^2 = 9.429$ df=2 p<.009
 *2001년 : $\chi^2 = 76.415$ df=2 p<.000
 *2006년 : $\chi^2 = 24.601$ df=2 p<.000

전체적으로 볼 때, 비취재기사는 1996년에 97.8%에서 2001년에는 94.0%, 2006년에는 89.8%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취재기사는 1996년에 2.2%, 2001년에는 6.0%, 2006년에는 10.4%로 나타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세 개 신문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한라일보의 경우에는 1996년에 3.3%를 보이다가 2001년에는 14.1%, 2006년에는 19.0%를 보이는 등 가장 큰 변화를 보였으며, 다른 두 신문에 비해 취재기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취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면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분석

미디어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유추할 수 있다. <표 5-16>에서는 연도별 <사람면>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직업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5-16>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직업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중앙 정부	광역 단체 장	기초 단체 장	지방 의회	정치 인	공무 원	교육 계	경찰 법조 계	금융 계	의료 계	문화 예술 종교 계	전문 가	기업 및 유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일반 사회 단체	1차 산업 종사 자	2,3 차산 업종 사자	일반 인	합계	
비 취 재 기 사	19 96	6 (0.2)	38 (1.4)	123 (4.7)	129 (4.9)	17 (0.6)	519 (19.7)	138 (5.2)	108 (4.1)	176 (6.7)	35 (1.3)	55 (2.1)	3 (0.1)	65 (2.5)	1 (0.0)	857 (32.6)	33 (1.3)	70 (2.7)	256 (9.7)	2629 (100.0)
비 취 재 기 사	20 01	15 (0.8)	39 (2.2)	132 (7.4)	69 (3.9)	15 (0.8)	378 (21.3)	216 (12.2)	112 (6.3)	74 (4.2)	39 (2.2)	47 (2.6)	6 (0.3)	94 (5.3)	1 (0.0)	329 (18.5)	21 (1.2)	49 (2.8)	140 (7.9)	1776 (100.0)
비 취 재 기 사	20 06	4 (0.6)	7 (1.0)	26 (3.8)	35 (5.1)	12 (1.7)	176 (25.5)	51 (7.4)	79 (11.4)	80 (11.6)	12 (1.7)	17 (2.5)	10 (1.4)	60 (8.7)	0 (0.0)	78 (11.3)	4 (0.6)	8 (1.2)	32 (4.6)	691 (100.0)
전 체		25 (0.5)	84 (1.6)	281 (5.5)	233 (4.6)	44 (0.9)	1073 (21.1)	405 (7.9)	299 (5.9)	330 (6.5)	86 (1.7)	119 (2.3)	19 (0.4)	219 (4.3)	2 (0.0)	1264 (24.8)	58 (1.1)	127 (2.5)	428 (8.4)	5096 (100.0)

	1996	2 (3.4)	0 (0.0)	1 (1.7)	1 (1.7)	2 (3.4)	2 (3.4)	8 (13.6)	5 (8.5)	2 (3.4)	2 (3.4)	2 (3.4)	0 (0.0)	9 (15.3)	0 (0.0)	14 (23.7)	1 (1.7)	3 (5.1)	5 (8.5)	59 (100.0)
취재	2001	8 (6.3)	9 (7.0)	1 (0.8)	2 (1.6)	1 (0.8)	36 (28.1)	5 (3.9)	7 (5.5)	5 (3.9)	0 (0.0)	4 (3.1)	1 (0.8)	7 (5.5)	0 (0.0)	17 (13.3)	1 (0.8)	2 (1.6)	22 (17.2)	128 (100.0)
기사	2006	3 (3.8)	0 (0.0)	0 (0.0)	0 (0.0)	0 (0.0)	12 (15.0)	10 (12.5)	3 (3.8)	2 (2.5)	4 (5.0)	1 (1.3)	3 (3.8)	13 (16.3)	0 (0.0)	4 (5.0)	0 (0.0)	0 (0.0)	25 (31.3)	80 (100.0)
전체		13 (4.9)	9 (3.4)	2 (0.7)	3 (1.1)	3 (1.1)	50 (18.7)	23 (8.6)	15 (5.6)	9 (3.4)	6 (2.2)	7 (2.6)	4 (1.5)	29 (10.9)	0 (0.0)	35 (13.1)	2 (0.7)	5 (1.9)	52 (19.5)	267 (100.0)

*비취재기사 : $\chi^2 = 466.988$ df=34 p<.000

*취재기사 : $\chi^2 = 81.440$ df=32 p<.000

<표 5-16>을 보면 비취재기사의 경우, 일반사회단체(24.8%), 공무원(21.1%), 일반인(8.4%), 교육계(7.9%), 금융계(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재기사의 경우에는 일반인(19.5%), 공무원(18.7%), 일반사회단체(13.1%), 기업 및 유관단체(10.9%), 교육계(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비취재기사의 경우, 정치인, 공무원, 경찰·법조계, 전문가, 기업 및 유관단체에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1차 산업 종사자와 일반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 집단의 비율이 20~25%를 점유,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재기사의 경우에는 전문가, 일반인은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정치인, 경찰·법조계, 문화·예술·종교계, 일반사회단체, 1차 산업 종사자, 2·3차 산업 종사자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는 1996년 8.5%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2001년에는 17.2%, 2006년에는 31.3%로 나타나 취재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취재과정에서 다수 나타나는 공적인 정보원들에 의존하는 수동적 취재가 아닌 기자 스스로 기사거리를 발굴하는 등의 능동적인 취재행태가 유추되는 대목이다. 이는 <사람면>의 기본 취지를 놓고 볼 때, 독자들의 생활에서 좀 더 밀착 가능한 이슈를 개발, 발굴하여 이들에게 근접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판단된다.

4)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지위유형 분석

앞서 살펴본 <사람면>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직업유형과 연계하여 <표 5-17>에서는 그들의 지위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5-17>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지위유형(단위: 건수, ()안은 %)

구분	공직자 (고위관리자)	공직자 (중간관리자)	공직자 (하위관리자)	정치계	경제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	일반인	합계	
비취 재기 사	1996	325 (12.4)	542 (20.6)	49 (1.9)	145 (5.5)	227 (8.6)	31 (1.2)	961 (36.6)	349 (13.3)	2629 (100.0)
	2001	346 (19.5)	470 (26.5)	57 (3.2)	84 (4.7)	159 (9.0)	35 (2.0)	411 (23.1)	214 (12.0)	1776 (100.0)
	2006	141 (20.4)	155 (22.4)	25 (3.6)	47 (6.8)	123 (17.8)	36 (5.2)	116 (16.8)	48 (6.9)	691 (100.0)
	전체	812 (15.9)	1167 (22.9)	131 (2.6)	276 (5.4)	509 (10.0)	102 (2.0)	1488 (29.2)	611 (12.0)	5096 (100.0)
취재 기사	1996	9 (15.3)	2 (3.4)	4 (6.8)	3 (5.1)	13 (22.0)	2 (3.4)	16 (27.1)	10 (16.9)	59 (100.0)
	2001	35 (27.3)	19 (14.8)	8 (6.3)	3 (2.3)	14 (10.9)	3 (2.3)	20 (15.6)	26 (20.3)	128 (100.0)
	2006	12 (15.0)	3 (3.8)	6 (7.5)	0 (0.0)	14 (17.5)	14 (17.5)	6 (7.5)	25 (31.3)	80 (100.0)
	전체	56 (21.0)	24 (9.0)	18 (6.7)	6 (2.2)	41 (15.4)	19 (7.1)	42 (15.7)	61 (22.8)	267 (100.0)

*비취재기사 : $\chi^2 = 293.713$ df=12 p<.000

*취재기사 : $\chi^2 = 51.162$ df=14 p<.000

<표 5-17>을 살펴보면, 비취재기사는 전체 5,096건으로 나타났고, 취재기사는 267건으로 나타났다.

비취재기사의 경우에는 협회 및 단체가 2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공직자(중간관리자)가 22.9%, 공직자(고위관리자)(15.9%), 일반인(12.0%), 정치계(5.4%) 순으로 집계되어 전체적으로 공직자 집단이 41.4%로 나타나 압도적인 분포를 보였다. 특히 공직자(고위관리자)는 1996년에 12.4%를 점유하다가 2001년에 19.5%, 2006년에 20.4%를 점유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 밖에도 공직자(하위관리자), 경제계, 전문가 집단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협회 및 단체, 일반인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취재기사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22.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공

직자(고위관리자)(21.0%), 협회 및 단체(15.7%), 경제계(15.4%), 공직자(중간관리자)(9.0%), 전문가(7.1%) 순으로 나타나 취재기사에 대한 일반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1996년에 3.4%를 보이다가 2001년 2.3%, 2006년 17.5%의 점유율을 보였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1996년에 16.9%에서 2001년 20.3%, 2006년 31.3%를 기록,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치계, 협회 및 단체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기사주제 분석

<표 5-18>에서는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기사주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5-18>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기사주제(단위: 건수, ()안은 %)

구분	회의 개최	회의 참석	행사 개최	행사 참석	기념식 개최	기념식 참석	격려 /당부	인사 이동	수상 /수여	봉사 활동	사회 사업	기타	합계	
비취재기사	1996	43 (15.3)	91 (3.5)	453 (17.2)	131 (5.0)	72 (2.7)	56 (2.1)	353 (13.4)	147 (5.6)	114 (4.3)	346 (13.2)	460 (17.5)	3 (0.1)	2629 (100.0)
	2001	178 (10.0)	120 (6.8)	284 (16.0)	61 (3.4)	45 (2.5)	24 (1.4)	299 (16.8)	181 (10.2)	159 (9.0)	89 (5.0)	336 (18.9)	0 (0.0)	1776 (100.0)
	2006	45 (6.5)	56 (8.1)	74 (10.7)	57 (8.2)	43 (6.2)	16 (2.3)	99 (14.3)	116 (16.8)	86 (12.4)	22 (3.2)	72 (10.4)	5 (0.7)	691 (100.0)
	전체	626 (12.3)	267 (5.2)	811 (15.9)	249 (4.9)	160 (3.1)	96 (1.9)	751 (14.7)	444 (8.7)	359 (7.0)	457 (9.0)	868 (17.0)	8 (0.2)	5096 (100.0)
취재기사	1996	0 (0.0)	0 (0.0)	2 (3.4)	4 (6.8)	11 (18.6)	0 (0.0)	5 (8.5)	20 (33.9)	10 (16.9)	4 (6.8)	2 (3.4)	1 (1.7)	59 (100.0)
	2001	4 (3.1)	0 (0.0)	7 (5.5)	0 (0.0)	11 (8.6)	0 (0.0)	12 (9.4)	48 (37.5)	37 (28.9)	0 (0.0)	6 (4.7)	3 (2.3)	128 (100.0)
	2006	1 (1.3)	0 (0.0)	4 (5.0)	1 (1.3)	6 (7.5)	0 (0.0)	4 (5.0)	24 (30.0)	31 (38.8)	0 (0.0)	8 (10.0)	1 (1.3)	80 (100.0)
	전체	5 (1.9)	0 (0.0)	13 (4.9)	5 (1.9)	28 (10.5)	0 (0.0)	21 (7.9)	92 (34.5)	78 (29.2)	4 (1.5)	16 (6.0)	5 (1.9)	267 (100.0)

*비취재기사 : $\chi^2 = 453.858$ df=22 p<.000

*취재기사 : $\chi^2 = 42.896$ df=18 p<.001

비취재기사의 경우에는 전체 5,096건의 기사 가운데 사회사업이 17.0%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행사개최(15.9%), 격려/당부(14.7%), 회의개최(12.3%), 봉사활동(9.0%) 순으로 나타났고, 기념식 개최(3.1%), 기념식 참석(1.9%) 등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회의참석, 인사이동, 수상/수여 등에 있어서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회의개최, 행사개최, 봉사활동 등에서는 감소 경향을 보였다.

취재기사의 경우에는 전체 267건의 기사 가운데 인사이동이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수상/수여(29.2%), 기념식 개최(10.5%), 사회사업(6.0%), 행사개최(4.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의참석과 기념식 참석에서는 단 한건의 기사도 집계되지 않았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수상/수여와 사회사업 등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봉사활동 등에서는 감소 경향을 보였고, 회의개최, 회의참석, 기념식 참석 등의 기사주제는 단 한 건도 집계되지 않았다.

6)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성별 분석

<표 5-19>에서는 각 연도별로 기사유형에 따른 성별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19>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성별분포(단위: 건수, ()안은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비취재기사	1996년	2233(84.9)	396(15.1)	2629(100.0)
	2001년	2233(84.9)	396(15.1)	2629(100.0)
	2006년	648(93.8)	43(6.2)	691(100.0)
	전체	4497(88.2)	599(11.8)	5096(100.0)
취재기사	1996년	48(81.4)	11(18.6)	59(100.0)
	2001년	122(95.3)	6(4.7)	128(100.0)
	2006년	58(72.5)	22(27.5)	80(100.0)
	전체	228(85.4)	39(14.6)	267(100.0)

*비취재기사 : $\chi^2 = 61.030$ $df=2$ $p<.000$

*취재기사 : $\chi^2 = 21.530$ $df=2$ $p<.094$

비취재기사 전체 5,096건 가운데 남성이 88.2%를 차지, 여성(11.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1996년에 84.9%를 차지했으나 2001년에 91.0%, 2006년에 93.8%를 차지하여 점차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1996년에 15.1%를 차지하다가 2001년에 9.0%, 2006년에 6.2%를 차지하여 점차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취재기사는 전체 267건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5.4%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4.6%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1996년에 81.4%에서 2001년 95.3%로 다소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72.5%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반면 여성은 1996년에 18.6%에서 2001년에 4.1%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27.5%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약한 수치이긴 하지만 취재기사에 있어 <사람면>에 등장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5.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에 보도되는 인물 기사를 중심으로 주된 등장인물의 직업, 사회적 지위, 성별 등과 지면에서의 기사위치, 기사주제, 관련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각 신문사별, 연도별 보도경향을 알아보았다.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사람면> 인물기사 5,363건을 대상으로 <사람면> 등장인물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연구문제 1 : 각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성별은 어떠하며, 이들의 기사는 지면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주된 직업유형은 일반사회단체에 속해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 일반인, 교육계, 금융계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조직이나 단체의 행사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인물 동정으로 보도했던 관행에서 볼 때,

그 비율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한편 <사람면>에 보도되는 이들의 직업유형이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 금융계 종사자 등에 편중되어 있음은 지역사회의 행정 관료나 그 밖의 엘리트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직업유형별 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협회 및 단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는 있으나, 이는 과거 단체의 동정을 인물에 초점을 두고 기사화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공직자가 전체의 40%를 넘는다는 것은 제주지역 일간지의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성별에 있어서도 남녀간에는 뚜렷한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남성의 경우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인 반면 여성은 10%를 조금 상회하는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여성들이 비활동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연결망이 남성보다 취약한 데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인물기사가 자리하는 지면상 위치에서 등장인물의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해당 일에 어떤 사람들이 보도되느냐에 따라 지면배치 상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하지만 분석결과, 직업유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은 주로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이나 교육계, 경찰·법조계 종사자들은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일반사회단체 구성원이나 일반인들은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중요한 위치부터 덜 중요한 위치까지를 넘나들고 있었고, 정치계는 주로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 경제계나 전문가들은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협회 및 단체 구성원들과 일반인들은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면위치 상 중요도에 따른 등장인물의 성별은 등장인물의 성별분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절대다수의 남성이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 위치하여 성별 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 연구문제 2 : 각 신문사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는 무엇이며 관련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등장인물의 기사주제를 살펴본 결과, 주로 사회사업, 행사개최, 격려/당부, 회의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공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사보다는 개인의 일상행사나 대외 PR용에 해당하는, 다분히 개인성을 띄는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사람면>의 신설취지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의 홍보성 기사로 채워지면서 그들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고,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지면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등장인물의 관련사진 제시에 있어서도 대부분 증명사진 크기의 사진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동정 위주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단순한 증명사진이나 취재사진마저 제시하지 않은 기사들도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일회성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전에 관련 사진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연구문제 3 : 각 연도별 등장인물의 유형과 기사주제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연도별 직업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에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면서 각 연도별 등장인물의 직업유형이 달라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현대로 올수록 공무원, 경찰·법조계, 금융계, 기업 및 유관단체의 비중은 다소 높아졌으나 1·2·3차 산업 종사자들과 일반인의 경우에는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의 비율이 괄목할 만큼 높아진 것은 제주라는 소규모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의 지위 역시 과거 협회 및 단체 구성원과 일반인의 비율이 공무원 집단보다 높았던 반면 현대로 올수록 공무원이나 경제계, 전문가 등의 비율은 높아졌으나 일반인의 비율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분포에 있어서도 각 연도별로 성별간의 기사보도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

었다. 이러한 특성은 직업유형이 다양하지 못한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연도별 등장인물의 기사주제에서는 과거 각종 공식 업무와 관련된 일들과 사회사업, 격려/당부 등의 기사주제가 주를 이루어왔던 반면, 현재로 올수록 공식적 업무수행과 더불어 인사이동, 수상/수여 등의 다소 개인적인 치적과 활동들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구문제 4 : 연도별 기사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유형과 기사주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사람면>에 등장하는 인물기사의 기사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개 인물이나 단체의 동정을 3~5줄로 보도하는 1단 단신기사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였고, 취재기사는 5%로 나타나 대부분 짧은 토막기사 형식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이는 <사람면>이 갖는 지면 특성상 <사회면>과 구분이 쉽지 않은 데서 오는 근원적인 문제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되는 많은 기사들을 한정된 지면에 게재하기 위한 경쟁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비취재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주요 직업유형은 일반사회단체, 공무원 집단으로 나타났고, 그 지위유형도 공직자 집단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재기사에서는 일반인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 지위 유형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기사주제에 있어서는 비취재기사의 경우, 사회사업, 행사개최 등이 높게 나타났으나 취재기사의 경우에는 인사이동, 수상/수여 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기사유형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취재기사의 경우, 현대로 올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지역신문은 지역밀착성으로 인해 지역민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람면>은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지역민에게 지역 사람들이나 단체들의 소식을 알리는데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일간지 가운데 3개 신문인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사람면> 인물기사 5,363건을 대상으로 <사람면> 등장인물의 직업, 사회적 지위, 성별 등과 지면에서의 기사위치, 기사주제, 관련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각 신문사별, 연도별 보도경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의 보도경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중앙일간지 <사람면> 보도경향과 비교해 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공적인 권력기관과의 사적인 관계형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김정기, 1999; 박동숙 외, 2001; 김사승, 2004; 김용학, 2004; 이완수, 2006 등)에서는 사적관계의 집약체인 연고주의가 뉴스 생산에 얼마만큼 비중 있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식적인 권력기관과 사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제주지역의 경우, 특유의 권당문화²⁰⁾와 지역적 협소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적 연결망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와 공공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더욱 긴밀하게 결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공생관계에서 파생되는 기사 게재

20) 제주어사전(1995년)에서 '권당'은 '돌보는 무리'라는 뜻인 '권당(眷黨)'의 제주어 표기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주도속담사전(1999년)에서는 '친족과 외척, 고종, 이종 등 멀고 가까운 친척을 두루 일컫는다'고 설명한다. 즉, 섬(島)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서로 얽히고설킨 제주의 사회, 지리적 특성상 '권당'은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그 어떤 정당 조직도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연합뉴스, 2006. 2. 6).

요청과 봐주기식 보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묵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선행연구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사람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특정한 사람들 즉, 공무원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동아시아의 허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기업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제주지역을 소위 ‘공무원 공화국’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이 대폭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전국 시도 16개 가운데 2위를 차지할 만큼 제주에서의 공무원 파위는 실로 막강하다.²¹⁾ 이러한 공무원 파위는 <사람면>의 주된 등장인물이 지자체단체장이나 공직자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기존 문헌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는 사건이나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선행연구(김우룡, 1993; 변달수, 1998; 이완수, 2006 등)에서는 특정계층의 보도비율이 높다고 지적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공적채널의 경우, 일반인보다 미디어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관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 척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단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추동세력이 대개 공식적 권력집단에 집중되어 있고, 미디어를 통한 잦은 주의집중이 이들에게 특별함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추가 가능한 것이다.

셋째, 정보원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보다는 공적채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출입처 관행에서 발생하는 보도 자료의 의존 경향과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적채널과의 연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공적채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강명구, 1990; 이원락, 1991; 이재경·김진미, 2000; 임영호·이현주, 2001 등)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에

21)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공무원정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정원은 모두 27만 4,400명으로 지난 2003년 25만 6,581명에 비해 6.9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공무원정원은 지난해 말 4,809명으로 지난 2003년 4,362명에 비해 10.25% 증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13.6%)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공무원정원이 5,169명으로 늘어나게 돼 제주지역 공무원정원은 3년 동안 18.5% 가량 증가했다(제주일보 2006. 10. 31).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공무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해석을 낳는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라는 소규모 지역에 공무원 비율이 높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보원이 다양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현상이라는 해석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넷째, <사람면>은 퍼블리시티 성격을 갖는 스케치 기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실제 <사람면>에서는 대부분 지자체단체장이나 고위 행정 관료, 각종 일반 사회단체장들의 일상적인 공적 업무와 관련된 행사개최, 행사참석 등과 관련한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기사 대부분이 각 출입처나 기관의 홍보담당자에게서 전해지는 보도 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람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특정계층의 퍼블리시티에 의해 채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특정인물의 홍보성 기사가 주를 이룬다는 선행연구(김우룡, 1993; 변달수, 1998; 이완수, 2006)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같은 날 여러 신문에 실리게 되는 동정기사들은 특정인물의 행적과 치적을 과시하는 기사들 즉, ‘얼굴 알리기’ 식의 보도로 치닫게 되어 결국 언론은 자발적으로 기득권자들에게 그들의 행적들을 홍보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면이 특정계층의 사적 영역으로 세분화 될수록 사회적 대립을 조장하고, 사회계층간 괴리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사회 이면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된 신선한 뉴스를 발굴하여 독자들의 가슴에 와 닿는 기사들로 지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람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지면만의 특색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기사들을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 주로 종합, 사회, 경제, 문화, 사람, 오피니언 등의 지면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사람면>을 들여다보면, 신문에 따라 지면구성이 다르긴 하지만 <사람면>의 지면 특성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오늘의 운세, 방송프로그램 편성표, 도서 발간 소식, 세미나 소식, 농사정보, 개업소식 등의 기사가 중구난방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중에는 물론 기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특정지면에 포함될 수 있는 기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사들도 있다. 이처럼 <사람면>에 보도되는 기사들의 일부는 자신이 들어가야 할 지면을 찾지 못하고 <사람면>에 정착하고 있다.

결국 <사람면>은 오갈 데 없는 기사들이 거쳐 가는 ‘간이역’ 역할을 수행하

면서 정체성을 상실, 고유의 특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면>은 그 고유의 지면 색깔에 맞는 기사들로 재구성하여 지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사람면>에서 보도되는 기사들은 일정한 포맷에 정형화된 맞춤형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람면>의 보도내용을 보면 특정인물이나 단체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등의 내용들로 구성, 기사주체나 기사주제들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 형식에서도 표준화, 획일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출입처별 보도 자료의 획일화에서 파생된 현상으로 자유로운 구성보다 정형화를 추구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독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고, 자신의 삶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된 읽기 쉬운 신문을 원한다. 이는 양질의 독자 서비스와도 관계가 있지만, 독자를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재는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영상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신문의 젊은 독자층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문의 발행부수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결국 독자와 좀더 밀착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하고 발굴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한 지면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표준화, 획일화에서 탈피, 기사 및 편집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사람면>은 사건들을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람면>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개 1~2일이 지난 과거형 기사이거나 당일 혹은 1~2일 후에 발생할 일들을 보도하고 있다. 취재기사 역시 숨어있는 기사를 발굴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일들에 대해서 보도하는 게 대부분이다. 더구나 동일한 보도 자료에 의존하면서 같은 날 각 신문에 동일한 보도사진이 구문이 다소 다른 기사와 함께 실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단신기사에 주로 사용되는 증명사진 크기의 사진들은 각 신문사마다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는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지 않아 시의성이 떨어진 사진들이 그대로 실리고 있었다. 이러한 보도관행은 독자로 하여금 식상함을 갖게 한다.

<사람면>은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시 말해, 다루어야 할 내용과 독자층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생동감 있는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신문은 내용이나 편집 등 신문지면 자체나 협소한 광고시장과 열악한 경영구조, 인력구조 면에서 볼 때 중앙일간지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일간지와는 달리 지역신문은 독자와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밀착형 보도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옥천신문이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은 지역 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사들로 지면을 구성함으로써 지역신문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식들을 발굴하여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지역저널리즘의 필수요소로 지역신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성을 전제로 한 지역신문에서 조차도 유료로 활용되고 있는 광고와 화촉, 부음 등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의 소소한 이야기나 일상적인 생활 등을 담은 지면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지역유지나 행정관료, 엘리트층의 동정기사 비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에 있다.

지역신문이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관심사안들을 신문지면에 반영해야 한다. 독자들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신문을 제작,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은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과잉시대에 지역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가장 쉬운 길은 ‘독자와의 근접성’이라는 모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면>이 지역사회의 여러 부분들을 조망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공한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가까운 우리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정립이 필요하다. 일부 특정계층의 소소한 일상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표출, 대변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기존의 연구들과 실제 게이트키퍼의 심층면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면>은 그 지면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이 증대되고는 있지만, 이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는데,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 몇 가지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면>에 대한 실제 독자들의 열독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사람면>에 대한 실제 열독률이 낮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나, 각 신문사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사람면>에 게재된 사람이나 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열독률이 높을 것이며, 이 밖에 <사람면>에 같이 실리는 화촉, 부음란의 열독률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게이트키퍼의 다소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실제 독자들의 열독률을 측정하는 척도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독자들에게 신문 지면별 열독행태에 관한 설문지를 병행했다라면 열독률은 물론 구독형태, 열독시간, 열독이유 등과 신문지면 분석 간에 상호연관성을 갖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사람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사람면>의 게재기준과 편집방침, 취재경로 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사람면>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문지면 분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 일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실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병행할 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사분석의 범위를 <사람면> 지면전체로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면>이라는 같은 지면에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인물과 단체를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단체에 대한 보도경향을 파악하지 못해 두 집단간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보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람면> 지면 전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90년대 이후 ‘동정란’이 폐지되면서 많은 신문들이 이를 모방하였으나 제주지역에서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제주지역에만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중앙일간지와 제주지역 일간지, 제주지역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했다라면 <사람면>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사람면>과 관계된 연구는 신문지면 분석과 독자들의 열독형태 조사 등의 양적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양적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와 함께 신문사의 편집방침, 취재관행 등의 요소들과 해당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분석한다면 좀 더 발전된 논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명구(1990). 한국 TV 뉴스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분석, 『TV 뉴스보도』. 한국언론연구원, 3~12.
- _____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340~344.
- 강상현(2002).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한나래.
- 고영철(2003). 한국 지방일간지의 기능 및 역할 가정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165~193.
- _____ (2004). 지방신문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제19호, 20~50.
- _____ (2006). 지역신문의 문화보도 경향-제주지역일간지 문화반송 연예면 기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 4호, 5~50.
- 구본권(2005).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사승(2004). 전문기자의 전문성과 뉴스의 질을 구축하는 취재보도 관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충원 경로에 따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56~78.
- 김신동(1998). 『신문 섹션화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저널리즘비평.
- 김용학(2004).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김우룡(1993). 『신문잡지의 여러 ‘난’ 을 비판한다』. 저널리즘비평, 18~23.
- 김정기(1999). 한국사회 연출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 사회학』, 26집.
- 김재영(2006). 취재원 활용 관행의 차이: 조선일보와 옥천신문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137~161.
- 김학천·김병길·김동규(2001). 『현대 미디어의 이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박동숙·조연하·홍주현(2001).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출입처에서의 취재원과 기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언론학보』, 45

- 권 특별호, 367~397.
- 박성희(2002). 일간지 ‘사람들’ 面 이대로 좋은가. 『관훈저널』. 통권 83호.
- 박용규(1996). 한국신문 취재보도 체제 개선 방안. 『언론연구』, 5호, 87~140.
- 박재영(2004). 『신문 지면의 구성 요소』. 서울: 미디어연구소.
- 박재영·전형준(2006). 독자 중심의 신문 제작과 독자의 실제 열독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5호, 211~249.
- 배현석 역(2006). 『미디어 효과의 기초』. 서울: 한울아카데미.
- 변달수(1998). 『한국신문 인물 동정면의 보도성향에 관한 일 고찰-4대 중앙 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서정우·한태열·차배근·정진석 공저(2001), 『신문학이론』. 서울: 박영사.
- 슈메이커 지음(1991), 최재완 옮김(2001). 『게이트키퍼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슈메이커, 리즈 공저, 김원용 역(1996).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 심재철(1996). 전환기의 한국언론. 『신문연구』, 62호, 214~222.
- 오창우(2000). 언론체계에 대한 public relations의 영향에 대한 고찰: 보도 자료 반영률과 보도자료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4권 4호, 120~142.
- 유일상(2002). 『매스미디어 입문』. 서울: 청년사.
- 윤영철·홍성구(1996).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뉴스 만들기: 지역언론의 뉴스틀 형성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언론과사회』, 11호, 99~122.
- 이동근(2004).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다양성에 관한 일고찰: 정보원 및 프레임 분석을 통하여.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218~242.
- 이배영·임준수·맹태균·한경석·강상대 공저(2001). 『멋진 편집 좋은 신문』.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완수(2006).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2권, 1~46.
- 이원락(1991). 『한국신문의 ‘관급보도’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재경·김진미(2000). 한국 신문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160~181.
- 이진우(2004). 『신문 경제 섹션 비교 분석』. 서울: 미디어연구소.
- 임영호·이현주(2001). 신문기사에 나타나 정보원의 권력분포: 1949~1999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권 1호, 300~330.
- 임영호(2002). 『전환기의 신문 산업과 민주주의』. 서울: 한나래.
- 장호순(2000). 『풀뿌리 지역신문의 역할과 기능』.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1). 한국신문의 취재원과 취재경로 분석. 2001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정상윤(1996).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신문사의 네트워킹에 대한 사례 연구. 『언론과사회』, 11호, 66~89.
- 정연구(2005). 방법론적 가치를 통해 본 한국 신문 1면의 전략적 위치.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246~275.
- 조수선(2004). 『신문 구독자의 다양성』. 서울: 미디어연구소.
- 존 호헨버그, 이동신·박기순·박정순·조종혁 공역(1987). 『신문방송취재보도론』. 서울: 탐구당.
- 전석호 역(2001). 『미디어 소사이어티』. 서울: 사계절.
- 최정호·강현두·오택섭 공저(1999).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 한국언론연구원(1990). 『90년대 신문 경영』.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한국언론재단(2001). 『보도비평: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학회 편(1994). 『언론학원론』. 서울: 범우사.

2. 국외문헌

- Altheide, D. (1976). *Creating reality: How TV news distorts events*. Beverly Hills, CA: Sage.

- Berkowitz, D. (1987). TV news sources and news channels: A study in agenda-building. *Journalism Quarterly*, 64, pp.508~513.
- Berkowitz, D. (1990). Refining the gatekeeping metaphor for local television new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4, pp.55~68.
- Berkowitz, D. (1991). Assessing Forces in the Selection of Local Television New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5, pp.245~251.
- Bridge, J. (1995). 『Females Finding Glass Ceiling Under Repair』. *Quill*. 83(6), p.16.
- Burns, J. E. (1995). Agenda setting reconsidered: The process at work in music radio.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Washington, D. C.
- Clark, J. (1960). 'A Study of the Use of Wire Service Copy by Iowa Evening News-papers which Receive Wire Service Copy only from the Iowa-Nebraska Circuit of the Associated Press', Unpubl. Ph. D. dissertation(University of Iowa).
- DeFleur, M. L. (1964). 'Occupational Roles as Portrayed on Television', *Public Opinion Quarterly*, 28, pp.57~74.
- Dominik, J. (1979). The portrayal of women in prime time. *Sex Roles*, 5(4), pp.405-411.
- Dunwoody, S., & Ryan, M. (1983). Public Information persons as mediators between scientists and *Journalism Quarterly*, 60, pp.647~656.
- Epstein, E. J. (1973). *News from nowhere: Television and the news*. New York: McCraw Hill.
- Favre, G. E. (2004). Celebrities in journalism: opening remarks.

www.poynter.org/content.

- Fejes, F. (1992). 『Masculinity as Fact: A Review of Empirical Mass Communication Research on Masculinity』, In Steve Craig, ed., *Men, Masculinity, and the Media*, pp.9~22. Thousand Oaks, Ca: Sage.
-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In H. Tumber (Ed.), *News-A Read* (pp.235~24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iber, W. (1956). Across the de냐: A study of 16 telegraph editors. *Journalism Quarterly*, 33, pp.424~432.
- Gold, D., & Simmons, J. L. (1965). News selection patterns among Iowa dailies, *Public Opinion Quarterly*, 29, pp.425~430.
- Hage, G. S. et al. (1976), *Public Affairs Reporting*(New Jersey: Prentice Hall), p.20.
- Hall. L. (2004). Celebs in trouble flood TV. *Television Week*, pp.48~49.
- Lang, K. & Lang, G. E. (1959). The mass media and voting. In E. Burdick & A. J. Brodbeck(Eds.), *American voting behavior*, pp.217~235.
- Lippmann, W. (1987). *Public Opinion*(New York: Harcourt Brace); D. McQuail, *Mass Communication Theory*(Beverly Hills : Sage), p.204.
- McCombs, M. E. & Shaw, D. E. (1972). "The agenda-setting research: An assessment of the priority ideas and problems:", in G. C. Wolhot & H. de Bockl(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 Book*, 2, Sage.
- McManus, J. (1995). A Market-Based Model of News Production. *Communication Theory*, 5, pp.301~305.

- Paletz, D. L., & Entman, R. M. (1981). *Media, power, politics*. NY: Free Press.
- Riffe, D., Aust, C., & Lacy, S. (1993). 'The effectiveness of random, consecutive day and constructed week sampling in newspaper content analysis. *Journalism Quarterly*, 70, pp.133~139.
- Riffe, D. Lacy, S., & Fico, F. D. (1998). *Analyzing media message*. Lawrence, MI: Erlbaum.
- Saltzman. J. (1998). Celebrity journalism, the public, and Princess Diana. *USA Today*, 126(2632).
- Segaar, T. & Wheeler, P. (1973). 'The World of Work on TV: Ethnic and Sex Representation in TV Drama', *Journal of Broadcasting*, 17, pp.201~214.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1). *Mediating the message: th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unt*. New York: Longman.
- Sigal, L.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The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Newsmaking. In H. Tumber(Ed.), *News-A Reader*(pp.224~23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igal, L. V. (1987). Who? : Source make the news. In Manoff, R, & Schudson, M.(Eds.), *Reading the news*. New York: Pantheon Books.
- Signorielli, N.(Ed.). (1985). *Role portrayal and stereotyping on television: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studies relating to women, minorities, aging, sexual behavior, health and handicaps*. Westport, CT: Greenwood.
- Soloski, J. (1989). Sources and channels of local news. *Journalism Quarterly*, 66, pp.864~870.
- Stempel, G. (1952). Sample Size for Classifying Subject Matter in

-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Summer, p.333.
- Synder, R. W. (2003). American journalism and the culture of celebrity. *Reviews in American History*, 31(3), p.440.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Wright, C. R. (1975). 『Mass Communication: A Sociological Perspective』, Random House.

3. 기타

연합뉴스 2006년 2월 6일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
제주일보 2006년 10월 31일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00)
<http://blog.naver.com/wing0544>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appear on the <People> sections in Jeju's daily newspapers

Kyong-Mi Lee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Cheju National University

Local newspap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close relationships among local people considering these papers' closeness to the regions. In particular, the <People> sections in these newspapers, play the role of a messenger, informing local residents about the events involving other local residents or organizations.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what kind of local people are reported in what content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appear on the <People> sections in daily newspapers in Jeju.

The study analyzed a total of 5,363 articles which appeared from 1996 to 2006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Jeju daily newspapers including Jejuilbo, Hallailbo, and Jeminilbo. This analysis was conducted in tandem with in-depth interviews with gatekeepers, who select and edit articles on the <People> sections.

Results showed that most articles were partial to administrative officials, people of influence, or those who were in the elite class in these regions, and over 40% of the articles were allotted

to government officials. In terms of gender-based distribution, most articles introduced men, taking over 90% of the articles. In the analysis of the location of articles in the newspapers, articles on peopl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offices, and local councils were often found on the upper part of the newspaper, which has high visual concentration, whereas those for the members of ordinary social organizations or citizens were usually located on the lower part of the newspapers.

Regarding the subjects of these articles, most articles reported official businesses or promotional articles for individuals, such as social projects, events, encouragement or suggestions, or meetings. Furthermore, most articles used ID card size photos of persons featured in the artic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types of people and article subjects by each year showed that while the ratio of members of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or normal citizens was high in the past, the ratio of officials, business people, or specialists and others in the elite groups increased as the articles became more recent. More promotional articles served as subjects of the articles compared to personal achievements and activities, e.g. personnel appointments or awards as well as official businesses.

Particularly, non-news articles based on one column articles took up over 95% of the total articles, and only 5% of these articles were news articles. Additionally, the types of job of the people who appeared on these non-news articles were mainly government officers, and those of people who appeared on the news articles were mainly ordinary citizens. This indicates an increase in the appearance of ordinary citizens in newspapers.

As these results showed, the <People> sections in Jeju daily

newspapers exhibited a tendency to report achievements and events involving people in specific classes,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rather than ordinary citizens. These articles were recognizing and promoting vested classes by focusing more on what was happening with administrative officials, people of importance, or those who were in elite classes, rather than on those of local people from the viewpoint of the local people.

Such tendency may be attributed to the specificity of daily newspapers in Jeju, which have been close to the local communities, caused by Jeju's unique 'Gwoendang Culture'. This serves as an example from which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official power groups and the media can be inferred.

Keywords : Local newspapers, People section, Informers,
Gatekeeping, Status conferral function

【부록: 심층면접지】

제주지역 일간지 ‘인물 동정면’ 담당자 심층면접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이경미입니다.

저는 <제주지역 일간지 ‘인물 동정면’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연구주제 : 신문의 ‘인물 동정면’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
- 2) 연구기간 : 1996년, 2001년, 2006년(3개년도 비교분석)
- 3) 연구대상 : 제주지역 일간지(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 4) 연구방법
 - ① 동정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는 각 신문사 담당자 심층면접
 - ② 동정면의 등장인물 내용 분석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 논문에서는 도내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인물 동정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동정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물 동정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주어진 문항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심층면접지에 따른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3월

※ 다음은 귀사 동정면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귀사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동정면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 90년대 이후 나타난 동정면의 증면 현상에 대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동정면 운영이 신문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고 /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음은 동정면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동정면의 역할 및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동정면에 게재될 경우, 해당 인물이나 기관에는 어떠한 영향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동정면에서는 어떤 인물 / 단체와 내용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귀사의 동정면 기사 게재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동정면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 동정면에 게재하는 기사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고 있습니까?
각 기관별 보도자료 / 개인의 제보내용 / 기자의 취재 등등

문) 1일 평균 몇 건의 동정면 관련 기사가 취재 / 제보되고 있습니까?
그 중 1일 평균 몇 건의 기사가 동정면에 게재되고 있습니까?

문) 동정면 게재 기사 선정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기사 선정기준 / 인물·단체 등의 지면 할애 비율 등등

※ 다음은 동정면의 열독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독자들의 동정면 열독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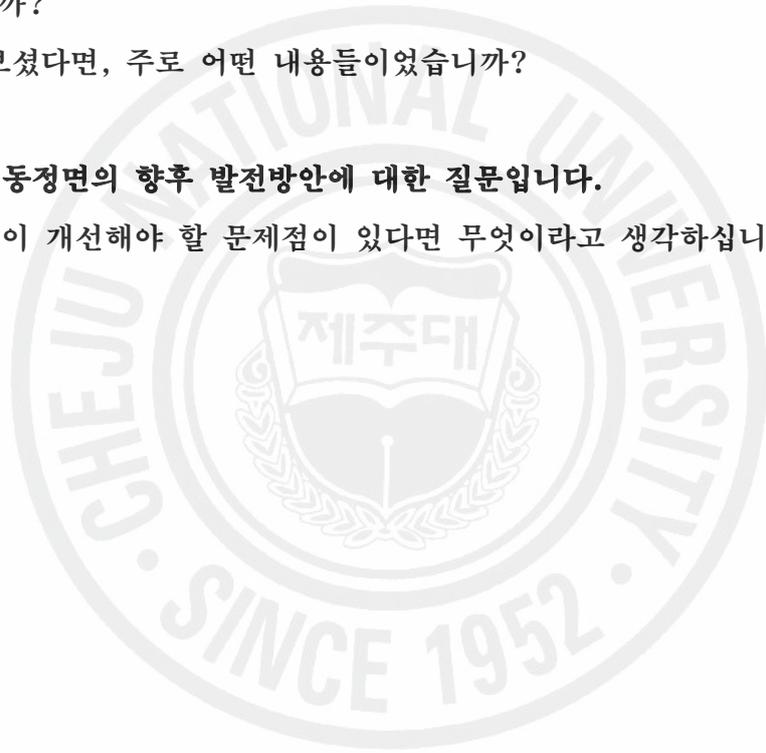
자주 읽는다고 / 자주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동정면에 실린 인물이나 단체로부터 피드백(전화, 메일 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보셨다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 다음은 동정면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동정면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코딩지】

〈사람면〉 분석 코딩지

1. 신문사

- 1) 제주일보 2) 한라일보 3) 제민일보

2. 년도

- 1) 1996년 2) 2001년 3) 2006년

3. 월

4. 일

5. 기사번호

6. 〈사람면〉 등장인물 기사가 지면에서 차지하는 위치?

(위로부터 몇 번째인지를 파악, 위로부터 다섯 번째 기사까지만 분석)

동정 



감사패 수상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 28일 사단법인 6·3 동지회(회장 이재오)로부터 과거 청산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

▶ 지면에서 차지하는 위치: 1



업무결산 평가보고회 개최

◇이창현 제주소방서장 28일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업무결산 평가보고회를 개최.

▶ 지면에서 차지하는 위치: 2



적십자 특별회비 기탁

◇강문원 변호사·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법률고문 27일 불우이웃을 위해 2007년 적십자 특별회비 1백만원 기탁.

▶ 지면에서 차지하는 위치: 3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김용영 한국광생보호공단제주지부 수놓음후원회원 29일 출소자들의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갱생보호 사업에 적극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지면에서 차지하는 위치: 4

7. <사람면> 등장인물 기사의 종류는?

- 1) 단신기사 2) 박스기사 3) 취재기사 4) 기타

8. 등장인물의 직업유형

- | | |
|---------------|------------------------------------|
| ① 중앙정부 |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 행자부 등 행정부처 |
| ② 광역단체장 | 도지사 |
| ③ 기초단체장 |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 |
| ④ 지방의회 | 도의회, 기초의회 의원 등 |
| ⑤ 정치인 | 국회의원 및 정당인 |
| ⑥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 |
| ⑦ 교육계 | 총장, 교장, 교육감, 초·중·고 교사, 교수 등 |
| ⑧ 경찰·법조계 | 경찰, 검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
| ⑨ 금융계 | 은행, 증권 등 금융계 종사자 |
| ⑩ 의료계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
| ⑪ 문화·예술·종교계 | 작가, 화가, 음악가, 연극인, 스포츠 선수, 목사, 스님 등 |
| ⑫ 전문가 | 언론인, 과학자,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연구원 등 |
| ⑬ 기업 및 유관단체 | 중소기업 이상 기업체나 관련직 종사자, 각종 협회 |
| ⑭ 시민사회단체 | 사회 변화, 개선을 목표로 한 단체 |
| ⑮ 일반사회단체 | 자생적 조직단체 구성원 |
| ⑯ 1차 산업 종사자 |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 종사자 |
| ⑰ 2·3차 산업 종사자 |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 |
| ⑱ 일반인 | 지역주민, 학생, 주부, 노인 등 |
| ⑲ 기타 |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

9. 등장인물의 지위

- | | |
|--------------|-----------------------------|
| ① 공직자(고위관리자) | 정부기관·공공기관 고위층(국장급 이상, 1~3급) |
| ② 공직자(중간관리자) | 정부기관·공공기관 중간층(계장급 이상, 4~6급) |
| ③ 공직자(하위관리자) | 정부기관·공공기관 하위층(7급 이하) |
| ④ 정치계 | 국회의원 및 정당인 |
| ⑤ 경제계 | 금융, 기업, 경제활동 관련 협회 등 |
| ⑥ 전문가 | 학자, 과학자, 의사, 변호사 등 |
| ⑦ 협회 및 단체 |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단체 및 자생적 조직단체 |

